

농업·농촌경제 동향: 2002년 4월

2002년 5월 2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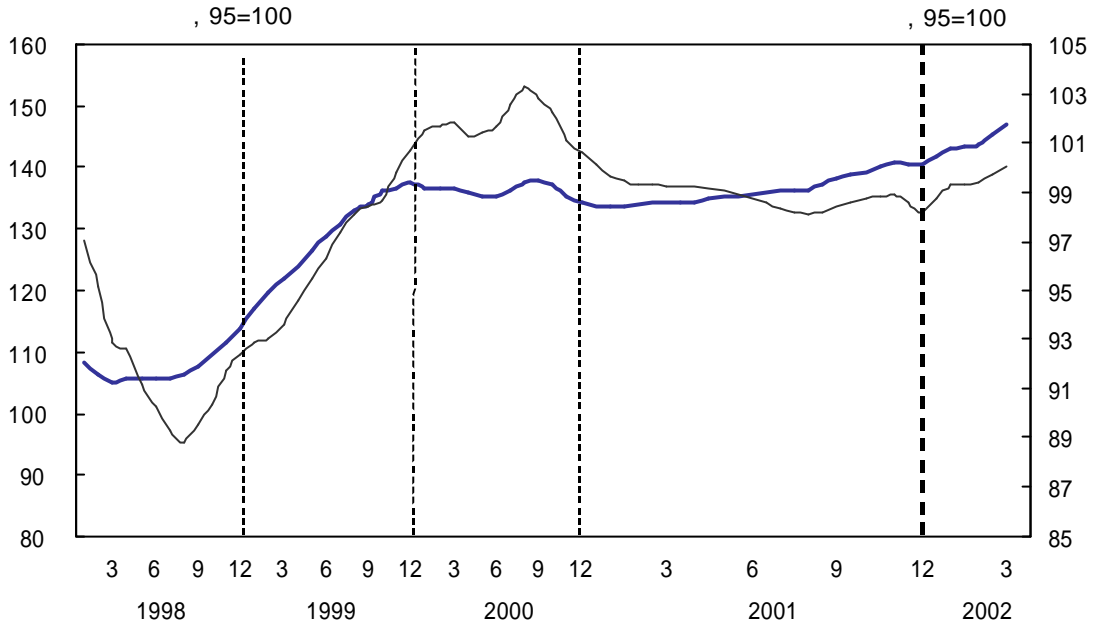
- I. 일반 경제
- II. 농업·농촌경제
- III. 품목별 수급동향
- IV. 지역 언론 보도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일반 경제

1. 경기동향

<경기종합지수 추이>



<경기종합지수 변동>

	2001년			2002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행지수 ¹⁾	98.7	98.9	98.2	99.3	99.4	100.0
전년동월대비(%)	△3.4	△2.2	△2.5	△0.4	0.1	0.8
선행지수	139.2	140.8	140.5	143.1	143.8	147.0
전년동월대비(%)	1.5	4.1	4.7	7.2	7.3	9.4

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의미
 자료: 통계청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5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을 기록)** 3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0년 12월 이후 15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2월에 이어 0.8% 상승함으로써 2개월 연속 증가세.
- **(선행지수 상승폭 확대 지속)** 선행지수도 금년 3월 147.0을 기록, 전월 대비 3.2p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하여 상승폭 계속 확대.

2. 산업생산 및 소비동향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지수 추이>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 변동>

	2001년				2002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산업생산 ¹⁾	160.7	158.2	161.6	159.1	164.3	157.8	163.7
전년동월대비(%)	2.4	0.8	5.0	3.5	6.5	0.6	4.3
도소매판매	130.9	127.9	130.4	134.9	128.0	121.2	136.7
전년동월대비(%)	7.9	4.8	6.6	8.1	7.3	8.1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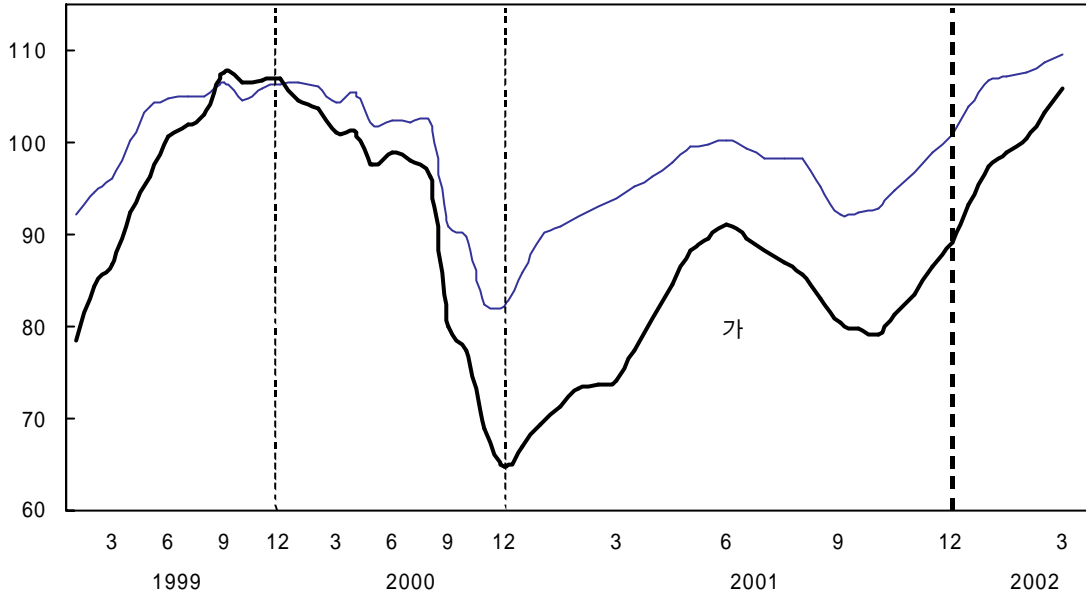
1) 계절조정치

자료: 통계청

-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2월 산업생산은 설연휴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3월 들어 증가세를 회복, 전월대비 5.9p,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163.7을 기록하여, 작년 10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 유지.
- **(도소매판매 3월 들어 상승세 회복)** 도소매판매도 2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 감소에서 3월 들어 전월대비 15.5p,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한 136.7을 기록하여 상승세 회복.

3. 소비심리 변화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소비자 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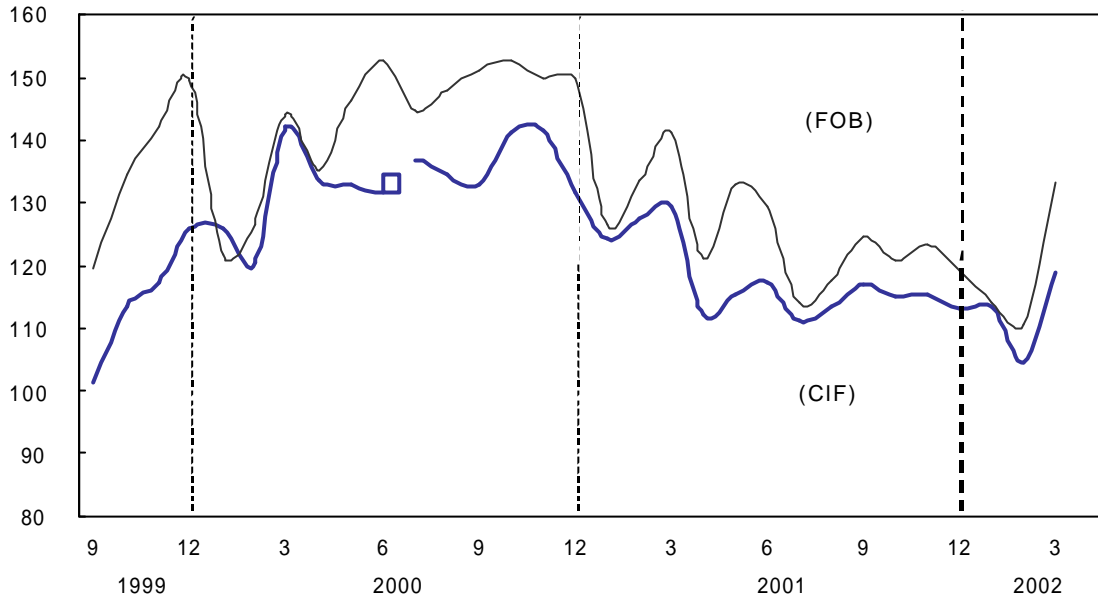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평가지수	80.4	79.0	83.6	89.2	97.4	100.5	105.9
전년동월대비(%)	0.5	1.9	21.5	38.1	40.3	37.3	42.9
기대지수	92.1	92.9	96.7	100.9	106.7	107.7	109.7
전년동월대비(%)	1.3	3.5	17.4	22.7	19.0	17.1	16.6

자료: 통계청

- **(소비자 평가지수 2개월 연속 100 상회)** 금년 2월, 22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소비자 평가지수는 3월에도 105.9를 기록, 2개월 연속 100을 초과함으로써 소비심리 호전추세 확대.
- **(소비자 기대지수 지수작성이래 최고치 경신)** 소비자 기대지수도 작년 12월 이후 계속하여 100을 초과, 금년 3월에는 지수작성이래 최고치인 109.7을 기록, 소비심리 호조가 지속될 전망.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동 추이>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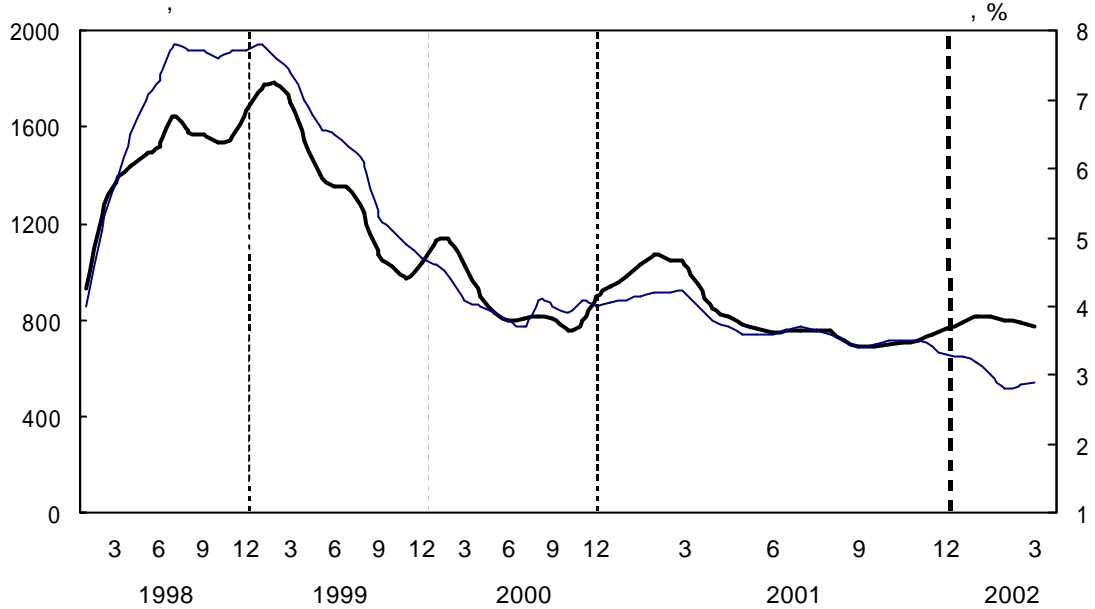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연간	4/4	11월	12월	1월	2월	3월
수 출	1,504.4	363.5	123.5	119.1	114.0	110.4	133.3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7	△19.6	△17.6	△20.4	△9.8	△17.3	△5.7
수 입	1,411.0	343.4	115.3	113.0	113.3	104.6	119.1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1	△17.1	△18.6	△14.2	△8.9	△17.9	△8.1
무역수지	93.4	20.1	8.2	6.1	0.7	5.9	14.2

자료: 관세청

- (수출입 감소세 뚜렷한 완화속에 2/4분기 중 반등 조짐) 3월중 수출은 전월보다 23억 달러 증가한 133.3억 달러, 수입은 전월보다 14.5억 달러 증가한 119.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로 5.7%, 8.1% 감소에 그쳐, 수출·입 모두 작년 3월 이후 최저 감소폭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출은 2/4분기 중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
- (3월중 무역수지 14.2억 달러로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수의 흑자 시현)

5. 고용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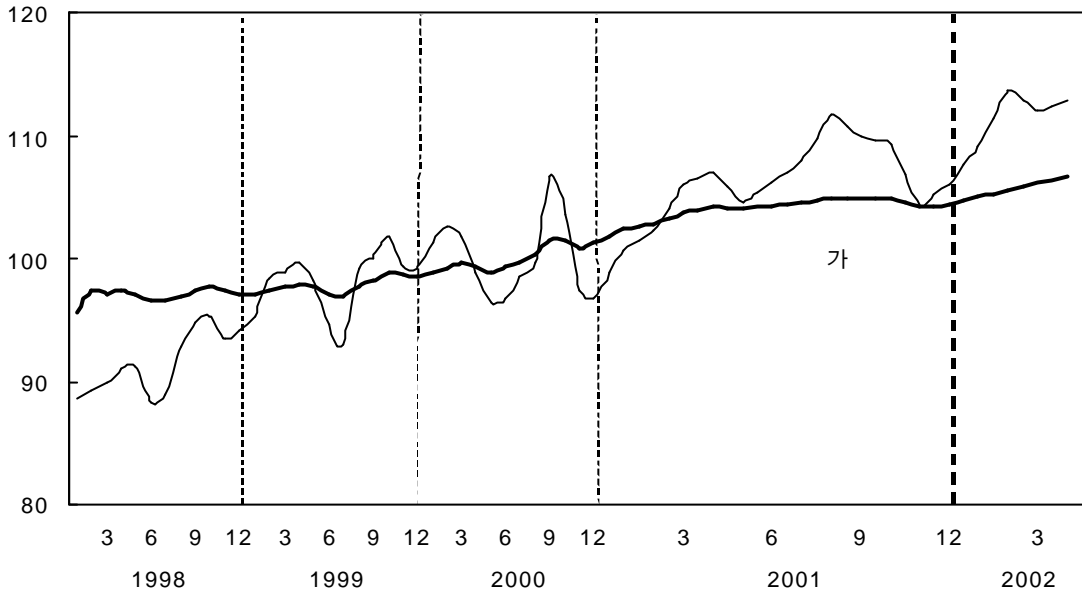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제 활동 인구	22,181	22,524	22,109	21,845	21,901	22,292
취업자	21,362	21,810	21,347	21,025	21,099	21,523
실업자	819	714	762	819	802	769
전년동기대비	△7.9	△10.4	△14.7	△16.6	△25.0	△25.7
실업률 (계절조정)	3.7	3.5	3.3	3.2	2.8	2.9

자료: 통계청

- **(고용여건 호전추세 지속)** 3월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0%(42만 4천명) 증가한 2,152만 3천명인 반면 실업자수는 전월대비 4.0%(3만3천명) 감소한 7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수 감소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전.
- **(3월 계절변동 실업률은 다소 상승)** 3월 계절변동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2.9%를 기록하였으나, 작년 10월 이후 하락세 유지.

6.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



<소비자 및 농축수산물 물가변동 추이>

단위: 지수(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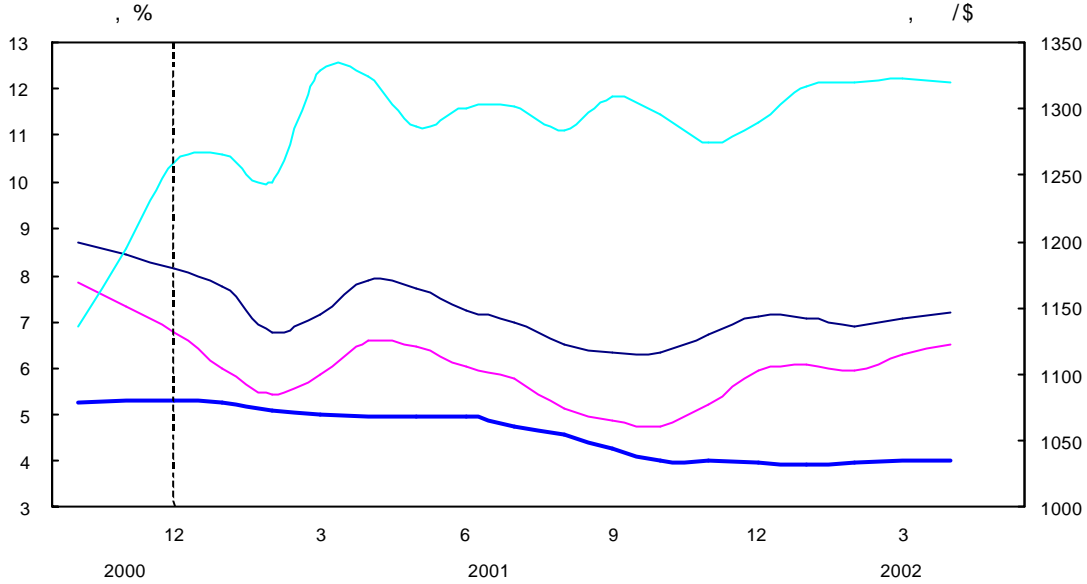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물가	104.8	104.2	104.4	105.0	105.5	106.1	106.7
전년동월대비(%)	3.4	3.4	3.2	2.6	2.6	2.3	2.5
농축수산물	109.3	104.3	106.0	109.1	113.6	112.0	112.8
전년동월대비(%)	5.5	7.2	9.5	8.3	11.2	5.8	5.4

자료: 통계청

- **(4월중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4월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공업 제품의 가격인상, 집세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으로 전월대비 0.6p,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한 106.5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세 유지.
- **(농축수산물 소비자가격도 4월 들어 소폭 상승)** 4월 농축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과채류의 가격상승으로 전월대비 0.8p,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7. 금리 및 환율

<월평균 금리변동 추이>



<월평균 금리 및 환율변동 추이>

단위: %, 원/\$

	2001년				2002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¹⁾
콜금리	4.27	4.00	3.99	3.96	3.95	3.97	3.99	3.99
국고채 ²⁾	4.89	4.75	5.23	5.93	6.08	5.92	6.30	6.48
회사채 ²⁾	6.32	6.31	6.71	7.11	7.07	6.89	7.05	7.21
환 율	1,309.10	1,296.10	1,274.00	1,289.66	1,317.60	1,318.72	1,322.51	1,320.05

1) 3년물 기준, 회사채는 AA-기준, 2) 4월 29일까지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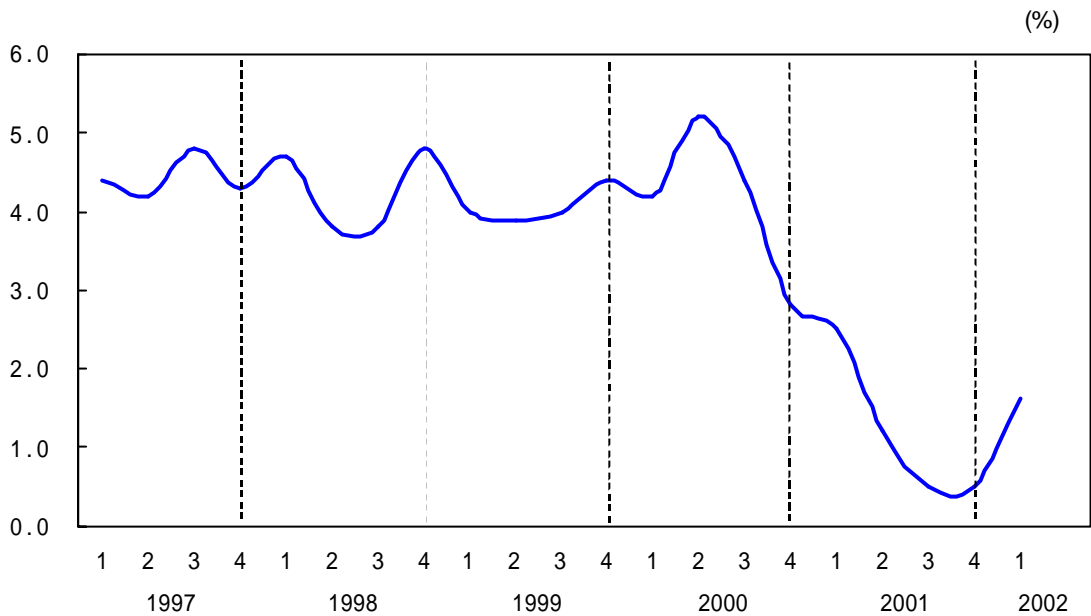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장·단기 금리 소폭 상승세 지속)** 4월중 콜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그러나 회사채,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주가 상승 및 경기지표의 호전 등으로 상승세 지속.
- **(4월중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 외화유동성 풍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8. 주요 선진국 경제

□ 미국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

	2001년				2002년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질 GDP ¹⁾	1.2			0.5			1.6
산업생산 ²⁾	141.3	137.7	137.2	136.7	137.4	137.9	138.8
경기선행지수	109.9	109.3	110.3	111.5	112.2	112.2	122.3
소비자 기대지수 ³⁾	82.5	75.5	76.6	82.3	91.3	87.2	92.7
실업률 ⁴⁾	4.8	5.4	5.6	5.8	5.6	5.5	5.7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1992=100, 3) 1966.1=100, 4)계절조정치
 자료: The Conference Board

- (금년 1/4분기 실질 GDP 예상보다 크게 높은 1.6% 성장) 미국의 금년 1/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정부지출, 재고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추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한 듯.
- (3월중 각종 경기지표 호조 지속)

□ 일 본

<일본의 주요 경기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1						200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GDP 성장률 ¹⁾			△0.5			△1.2		
산업생산 ²⁾	95.6	95.2	93.0	92.7	90.4	91.1	91.0	92.1
수 출	△6.4	△8.4	△11.0	△9.0	△9.2	△14.5	△1.8	△4.2
실 업 률	5.0	5.0	5.3	5.4	5.4	5.5	5.3	5.3

1) 전분기대비 증감률(연율), 2) 광공업 산업생산(1995=100)

자료: 일본 내각부

- (경기침체 지속, 일부 경기지표 2월 들어 소폭 개선) 일본 경제는 구조 조정의 불확실성으로 내수부진과 물가하락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들어 산업생산 및 수출 감소세 둔화, 재고조정 등 일부 지표 호전 조짐.

□ 유로(Euro)지역

<유로지역의 주요 경기지표 추이>

		2001					2002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유 로 지 역	GDP 성장률	-	1.4	-	-	0.6	-	-
	산업생산 ¹⁾	1.1	△0.5	△2.5	△4.0	△4.5	△3.1	△3.3
	실 업 률 ²⁾	8.3	8.3	8.3	8.4	8.4	8.4	8.4
독 일	산업생산	0.1	△1.5	△3.0	△3.9	△4.2	△4.5	△4.9
	실 업 률	7.9	7.9	8.0	8.0	8.0	8.1	8.1
프랑스	산업생산	4.6	1.1	△1.8	△1.9	△2.9	△1.3	△1.3
	실 업 률	8.6	8.6	8.7	8.8	8.9	8.9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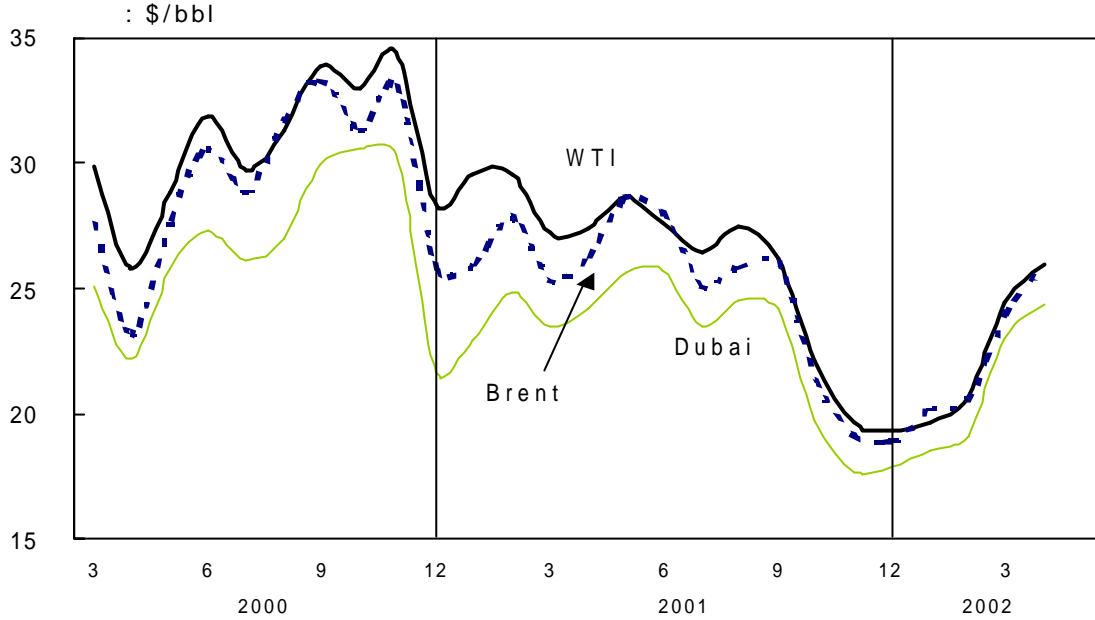
1) 근무일 조정치 2) 계절조정치

자료: EUROSTAT

- (경기회복 조짐 점차 가시화) 유로지역경제는 금년 들어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 소매판매 증가,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등 경기 회복조짐이 점차 가시화.

9. 국제유가

<최근 국제유가 변동추이>



<최근 3개월 국제유가 변화>

단위: \$/bbl, %

	2001			2002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¹⁾
WTI	27.41 (6.3)	19.62 (Δ43.0)	19.30 (Δ31.9)	19.70 (Δ33.4)	20.69 (Δ30.1)	24.40 (Δ10.3)	25.96 (Δ5.3)
Brent	26.25 (13.3)	19.19 (Δ41.9)	18.93 (Δ26.2)	20.18 (Δ22.3)	20.55 (Δ26.1)	23.96 (Δ5.4)	25.81 (Δ1.7)
Dubai	24.22 (9.4)	17.69 (Δ41.7)	17.89 (Δ17.4)	18.54 (Δ19.1)	19.10 (Δ23.1)	23.01 (Δ2.0)	24.35 (0.5)

1) 4월 19일까지 평균, ()안은 전년동월대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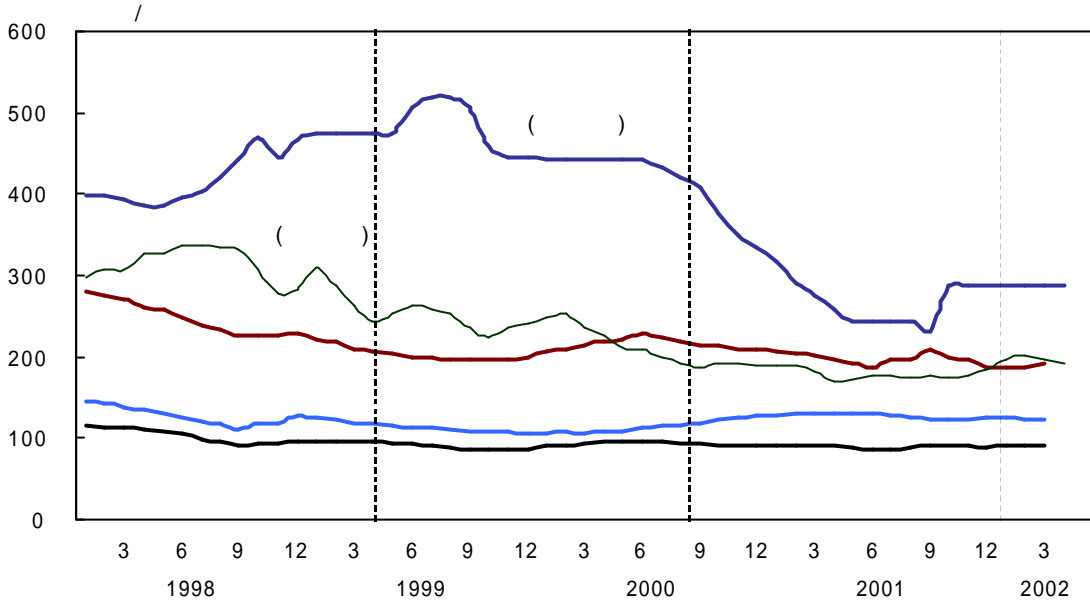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상승폭은 둔화) 연초부터 OPEC의 감산지속 및 세계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3월중 중동지역의 긴장고조로 배럴당 27달러까지 상승, 4월에 들어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상당히 둔화.
- (국제유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향후 소폭 상승할 듯)

Ⅱ. 농업 · 농촌경제

1. 국제 곡물가격

<국제 곡물가격 추이>



<국제 곡물 가격>

단위: \$/톤

	1999	2000	2001	2001		2002		
				3/4	4/4	1월	2월	3월
쌀(중립종)	480.6	413.6	267.1	239.0	287.0	287.0	287.0	287.0
쌀(장립종)	255.0	211.0	178.8	176.3	178.7	197.0	201.0	195.0
콩	204.0	211.8	195.8	207.3	188.3	188.0	187.0	191.0
옥수수	91.0	88.5	89.6	91.7	89.3	92.0	90.8	89.6
밀	113.9	114.1	126.8	122.6	123.7	125.3	123.3	122.5

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정곡)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정곡), 소맥은 U.S. Gulf No.1 HRW, 옥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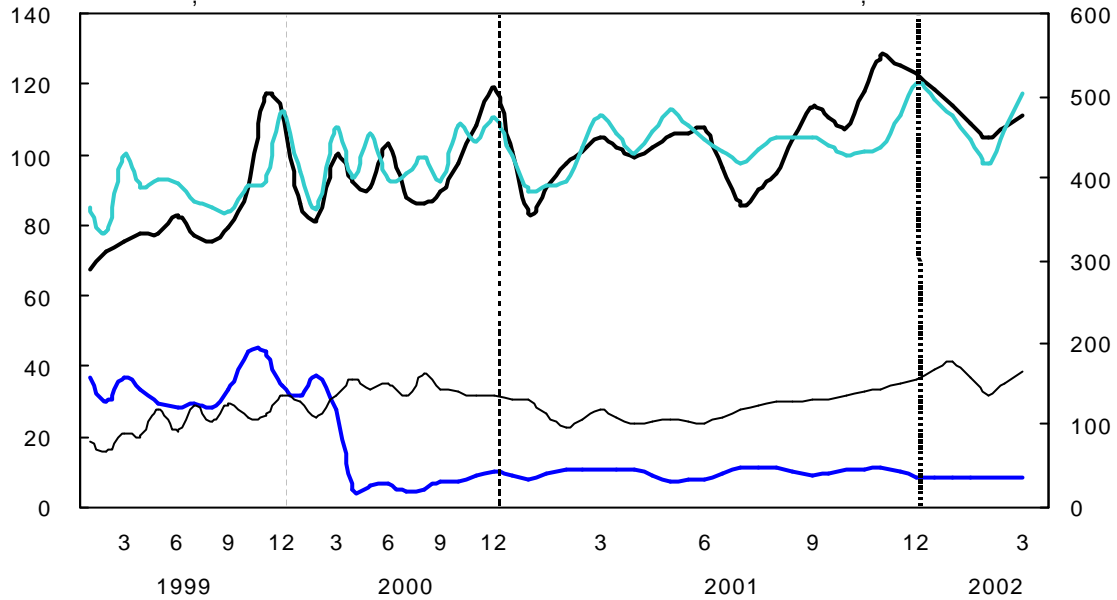
자료: USDA-ERS, *Rice Outlook*, April, World Bank *Development Economic Prospects*

○ (장립종 쌀의 3월 국제가격 소폭 하락, 중립종은 불변)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3월 들어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소폭 하락,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 (기타 곡물의 국제가격은 생산증가 전망에 따라 소폭 하락세)

2. 농축산물 수출입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농축산물 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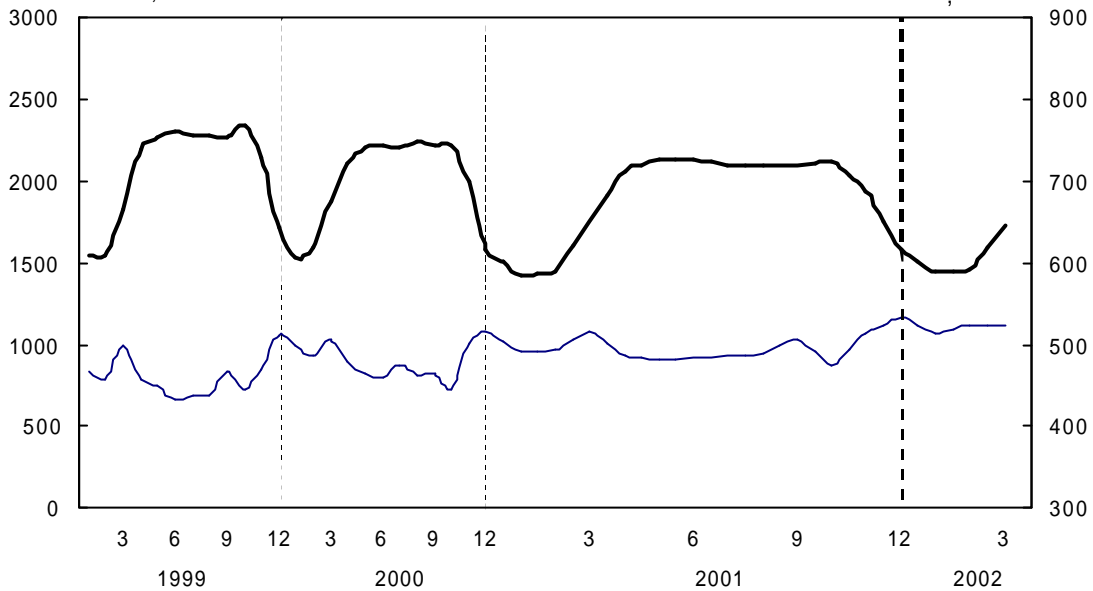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3월	1~3월	3월	1~3월
수출	농산물	1,142.5	1,251.9	105.0	286.1	111.1	329.9
	축산물	156.8	117.9	11.1	29.9	8.4	25.5
	소계(A)	1,299.3	1,369.8	116.1	315.9	119.6	355.4
수입	농산물	5,100.3	5,325.3	476.5	1,258.8	502.3	1,396.3
	축산물	1,679.4	1,466.5	118.0	344.6	164.8	479.0
	소계(B)	6,779.6	6,791.8	594.5	1,603.3	667.1	1,875.3
순수입	B-A	5,480.3	5,422.0	478.4	1,287.4	547.6	1,519.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3월까지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3월까지 농축산물 수출은 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에 따른 과실류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 (3월까지 농축산물 수입은 17% 증가) 3월까지 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9%, 축산물은 39.0% 증가.

3. 농림업취업자와 농외취업자

<농림업 취업자수 변동 추이>



<농가의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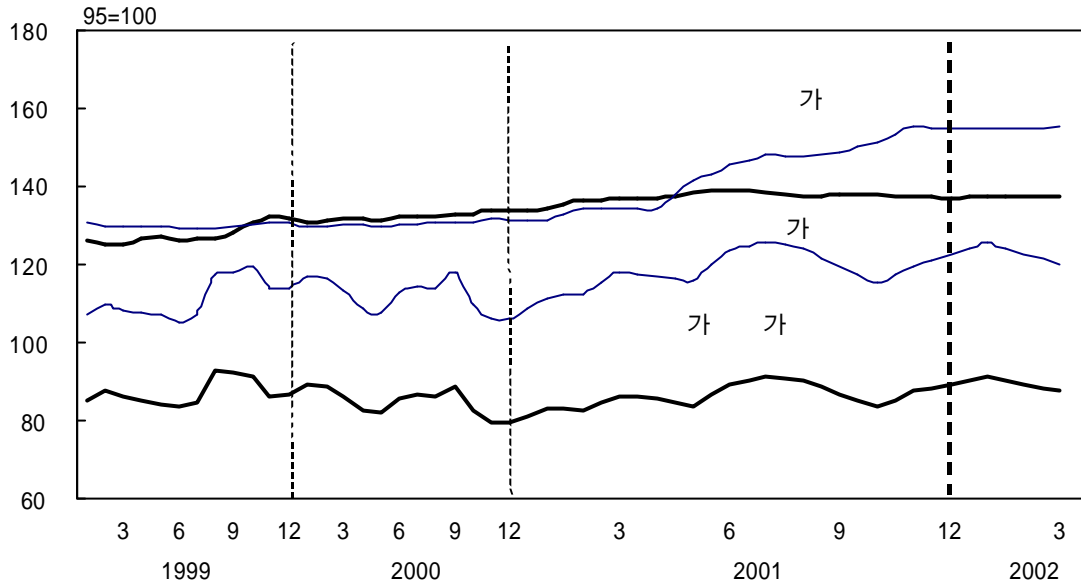
	2001						2002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농림업취업자	1,419	1,453	1,748	2,124	1,941	1,583	1,447	1,463	1,729
전년동월대비	△7.4	△8.5	△7.0	△3.9	△2.5	△0.2	2.0	0.7	△1.1
농외취업자	490	482	516	475	513	533	514	524	524
전년동월대비	△1.6	1.2	2.2	6.5	2.2	3.5	4.9	6.5	1.6

자료: 통계청

- (농가 농림업 취업자수는 계절요인으로 증가) 3월 농가의 농림업 취업자수는 계절요인으로 전월대비 19% 증가한 172만 9천명을 기록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1% 감소한 수준.
- (농가 농외취업자수는 전월과 동일) 3월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전월과 동일한 52만 4천명 수준. 전년동월대비로는 1.6% 늘어 완만한 증가세 유지.

4. 농촌물가

<농촌물가 추이>



주: 투입재가격은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가격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치임.

<농촌물가지수 변화추이>

	1999	2000	2001년		2002년		
			연 간	12월	1월	2월	3월
농가판매가격지수	108.5	109.6	118.7	122.3 (15.5)	125.3 (12.4)	122.4 (8.8)	120.0 (1.7)
투입재가격지수	127.6	132.2	137.2	137.0 (2.5)	137.3 (2.3)	137.5 (0.9)	137.7 (0.7)
판매가격/투입재	87.0	84.6	86.5	89.3 (12.7)	91.2 (9.9)	89.0 (7.9)	87.2 (1.0)

주: ()안 숫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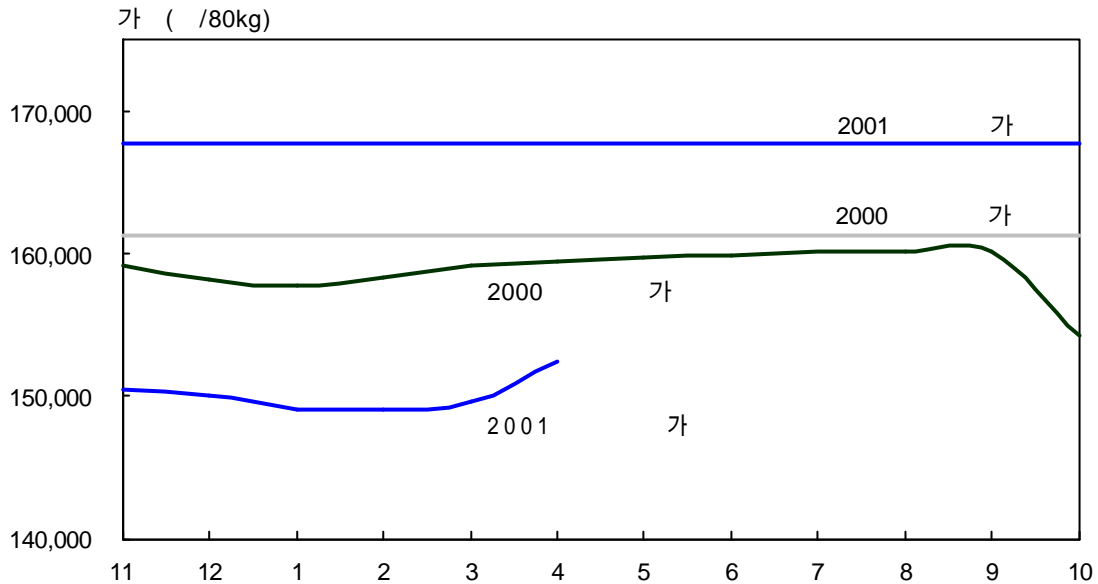
자료: 농협

- (농가판매가격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폭 하락) 농가판매가격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전월대비 2.4p 하락한 120.0을 기록. 전년동월대비로는 1.7% 상승
- (농가경영여건 악화 지속) 농가판매가격의 하락과 함께 농업투입재가격의 상승으로 농가경영여건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계속 악화.

5. 쌀 수급동향과 전망

□ 쌀 가격동향

<쌀 가격 추이>



<쌀 가격 변동추세>

단위: 원/80kg, %

	2001년				2002년			
	1월	2월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 ¹⁾
산지가격	157,751	158,358	159,183	159,495	149,182	149,015	149,586	152,534
전월대비	△0.3	0.4	0.5	0.2	△0.6	△0.1	0.4	2.0
전년대비	1.5	1.8	2.1	2.4	△5.4	△5.9	△6.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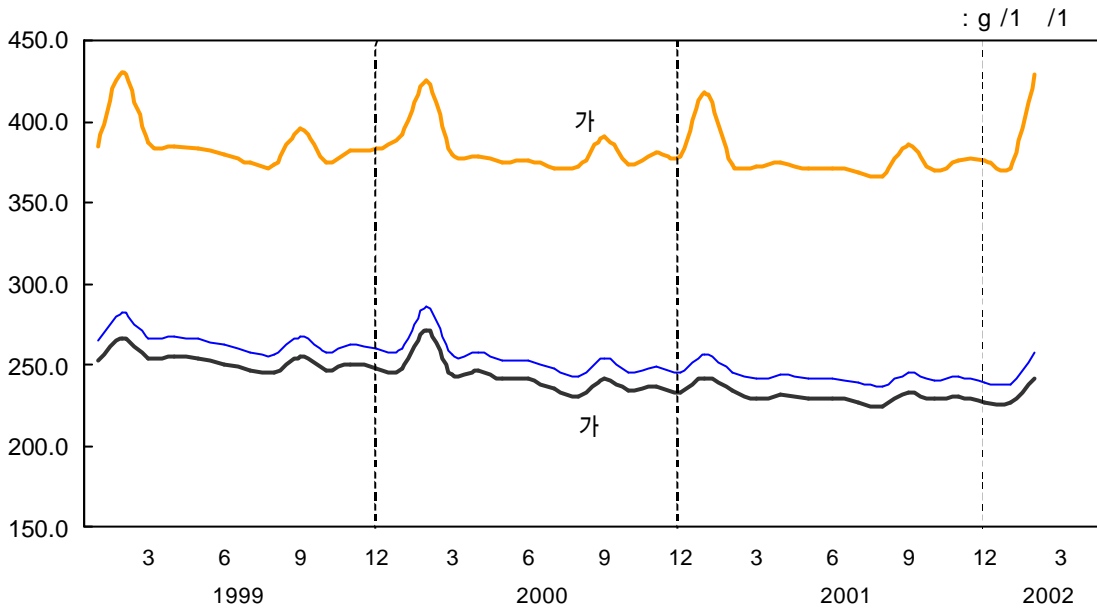
1) 4월 27일 가격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과

- (쌀 산지가격 상승세 지속) 4월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5만 2,534원으로 3월 0.4% 상승에 이어 다시 전월대비 2.0%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도 하락폭 감소세.

□ 쌀 소비량 동향

<쌀 소비량 추이>



<쌀 소비량 감소율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

	2001 양곡년도			2002 양곡년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2월
전 가 구	△7.9	△3.7	△2.4	△2.4	△2.4	△7.1	4.8	△1.3
농 가	△3.1	△1.2	△1.0	△1.4	△0.9	△11.2	14.7	1.0
비농가	△8.4	△3.8	△2.3	△2.6	△2.7	△6.3	3.4	△1.5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과

- (쌀 소비량 감소세 완화 지속) 1인 1일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금년 1~2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1.3%에 그쳐 쌀 소비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듯.

Ⅲ. 품목별 수급 동향

1. 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4월 채소류 가격은 전월이나 작년 동기보다는 높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평년동기에 비해서는 약세를 지속하였음.
- 전반적인 채소 작황은 봄철 기상 호조에 따라 작년이나 평년보다 좋음, 마늘·양파의 수확면적은 당초 예상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각각 5%,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고랭지 작형의 재배의향면적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채소 도매가격 증감률 동향(상품 기준)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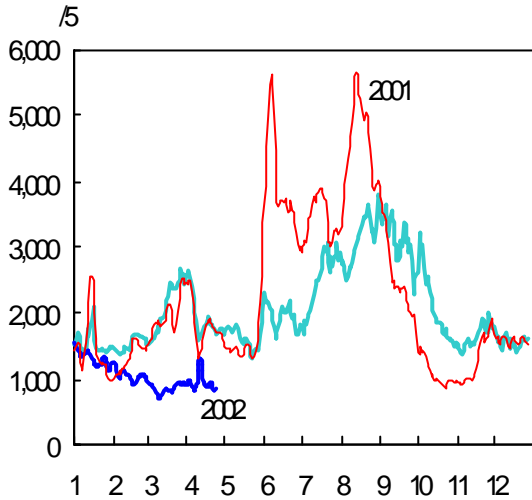
	1~3월 가격		4월 가격			5월 전망	
	작년 동기 대비	평년 동기대비 ²⁾	전월 대비	작년 동기 대비	평년 동기대비 ²⁾	4월 대비	작년 동기대비
배추	△30	△33	12	△49	△52	+	보합
무	△23	△36	126	34	18	보합	+
고추	△8	9	△8	△14	3	보합	-
마늘	52	8	△1	71	20	-	+
양파	△52	△51	30	△6	△49	-	+
대파	1	△19	18	32	△12	+	-
쪽파	△6	△17	77	111	△3	+	+
양배추	△15	△51	14	28	△49	+	-
당근	△1	△16	38	△14	△12	보합	-
감자(수미)	△12	△16	130	△27	△21	+	-
감자(대지)	△35	△41	5	△11	△30	-	보합

1) 가락동시장 도매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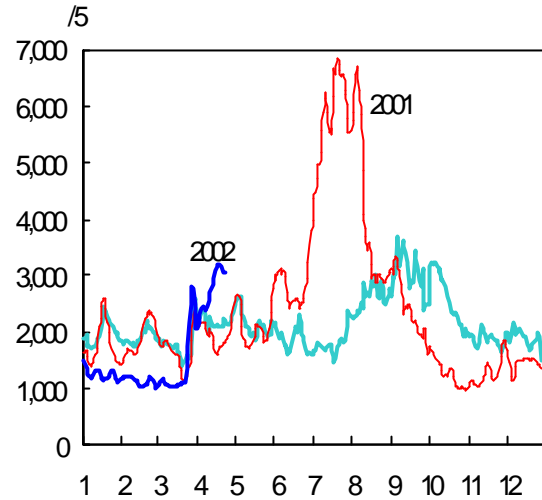
2)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무·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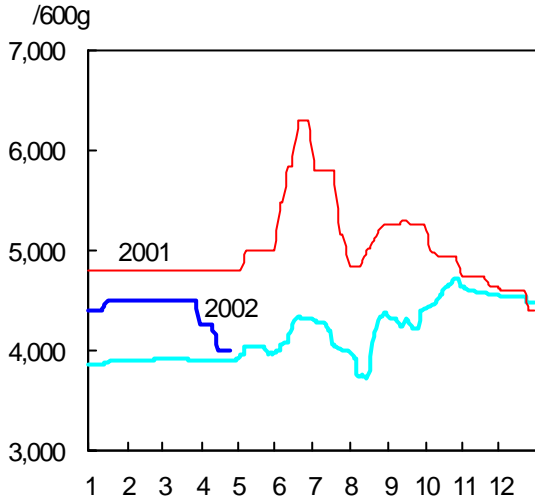


주 :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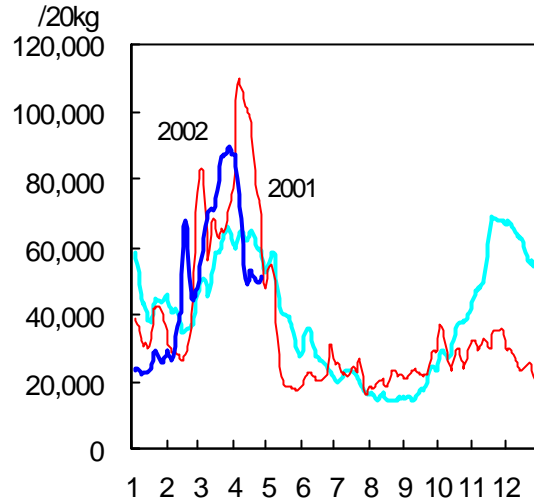
- 4월에 배추가격은 약세를 지속하였으나, 무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음. 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봄철 기온상승으로 저장무 감모율이 높아 출하대기물량이 감소하였고, 봄무 출하물량도 적어 전체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5월 배추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저온저장된 월동배추의 출하대기물량이 많으나 선호도가 낮은 만생종 품종이 많아 수요가 봄배추로 대체되고 봄배추 출하대기 물량이 작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5월 무 가격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봄무 출하대기물량은 작년과 비슷하나 저장무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어 전체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6월 무배추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봄무·배추 작화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준고랭지 1기작 배추와 평지 여름무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고랭지무·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다. 고추

<건고추 도매가격 동향(화건, 상품)>



<홍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년~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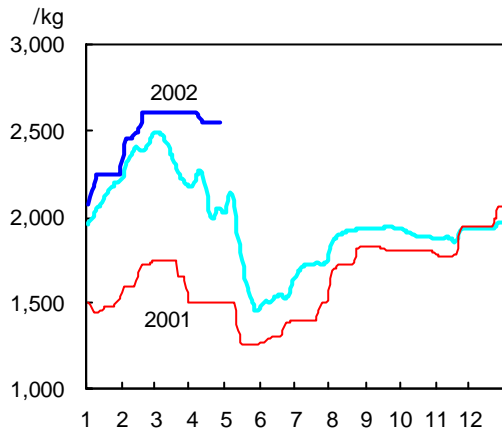
- 4월말 2001년산 고추 공급량은 19만 3,800여톤(MMA 3,800톤 포함)으로 작년 동기보다 4% 적고, 소비량은 6% 적은 16만 2,800여톤으로 추정되어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6% 많은 3만 1,000여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단경기인 5~7월의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600g당 4,100원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25%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산동성의 2001년산 익도산 고추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약 30% 많은 7천 톤 정도이나,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양질의 고추는 오히려 작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됨.
- 담배 계약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농가들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고추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산 고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고추 공급량 추정 (4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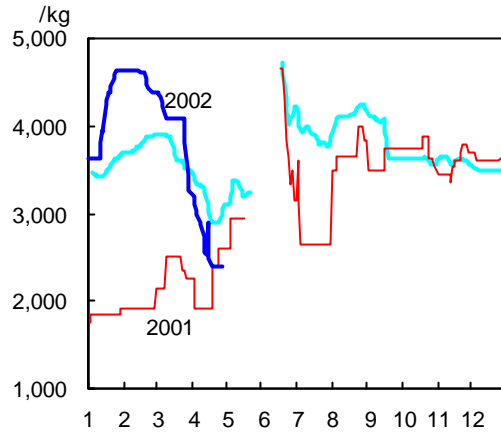
연산	생산량 (A)	8~4월 이월·수입량(B)	공급량 (C=A+B)	단위: 톤, %	
				8~4월 소비량 (D)	4월말 재고량 (E=C-D)
2000	193,800	8,120	201,920	172,780	29,140
2001	180,120	13,660	193,780	162,780	31,000
증감률	-7.1	68.2	-40	-58	64

라. 마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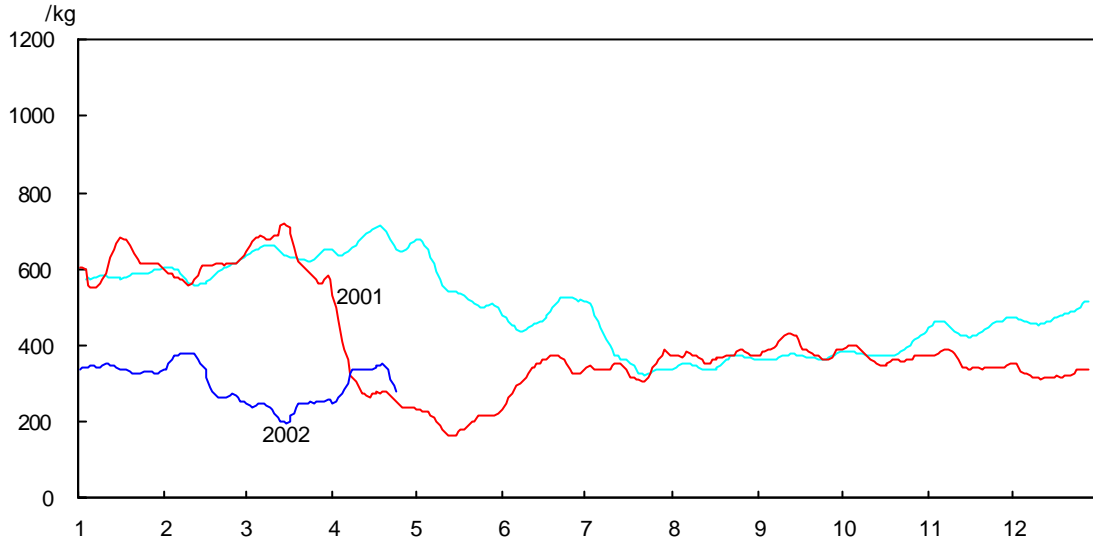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4월 마늘 도매가격은 난지형과 깎마늘의 경우 3월 이후 계속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한지형의 경우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한지형 가격이 계속 하락한 것은 소비자가 통마늘로 유통되는 한지형보다는 소비가 간편한 깎마늘을 선호하기 때문임.
- 중국 산동성의 금년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8% 증가하고 작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4월 중국산 마늘 수입은 주로 냉동마늘, 다진마늘, 초산조제마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마늘과 깎마늘은 저장량 부족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수입관세로 인해 수입 실적이 없음.
- 마늘 수확면적은 당초 작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3월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차 조사결과에 의한 추정치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년 수확면적은 3만 3,4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18% 감소한 6,900ha, 난지형이 8% 감소한 26,5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5% 정도 높을 것으로 보여 금년 마늘 생산량은 작년 생산량보다 4~7% 적은 38~39만톤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수확기인 5~7월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마.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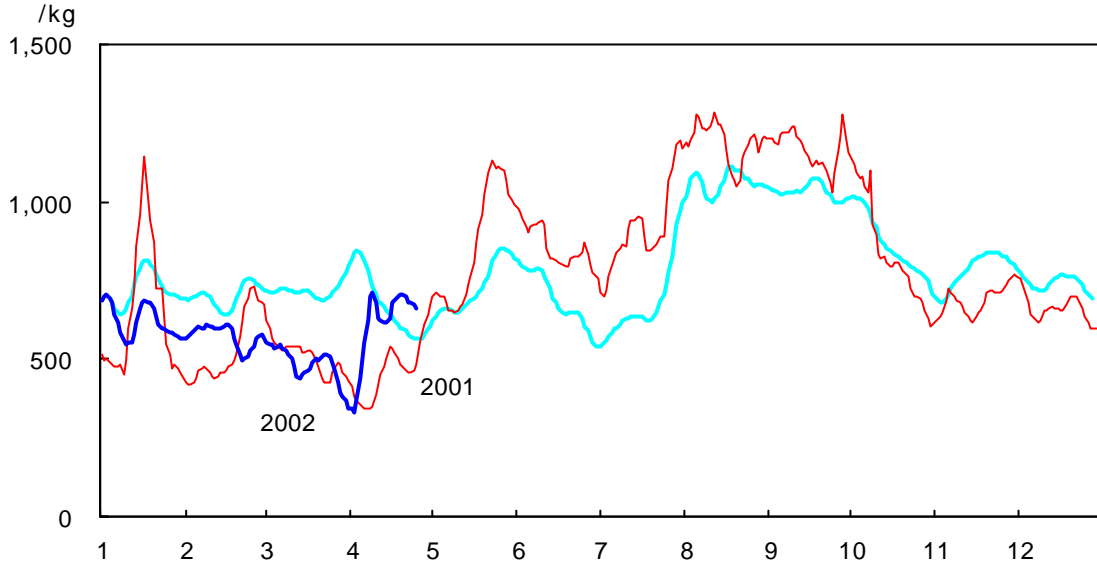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4월 양파의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306원으로 3월보다는 높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6% 낮은 수준임. 4월 양파 가격이 조생종 포전폐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저장양파의 출하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조생종 양파의 출하시기와 겹쳐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양파 수확면적은 당초 작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3월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차 조사결과에 의한 추정치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년 수확면적은 1만 5,6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포전폐기면적을 포함하여 24% 감소한 2,400ha, 중만생종이 17% 감소한 13,2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6% 정도 높을 것으로 보여 금년 양파 생산량은 작년 생산량보다 11~15% 적은 91~96만톤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작년보다 13~22% 감소한 13~15만톤, 중만생종은 10~14% 감소한 78~81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조생종 양파 생산량 감소분과 품위저하품의 시장거래 제한물량을 고려할 경우 조생종 양파 수확기 공급량은 작년 동기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보여 5월 양파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는 높지만 4월보다는 낮아질 전망.

바.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4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으나 상품성이 높은 경기도 하우스 구조파가 예년보다 5~10일 정도 일찍 출하되어 4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590원(중품 50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12% 낮았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32% 높은 수준.
- 5~6월의 봄대파 출하예상량이 작년보다 9% 많아 5~6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0% 낮은 상품 kg당 700~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
- 7~8월의 여름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하고, 5~6월에 정식되어 11월 이후에 출하되는 남부지방 대파의 정식의향면적은 5%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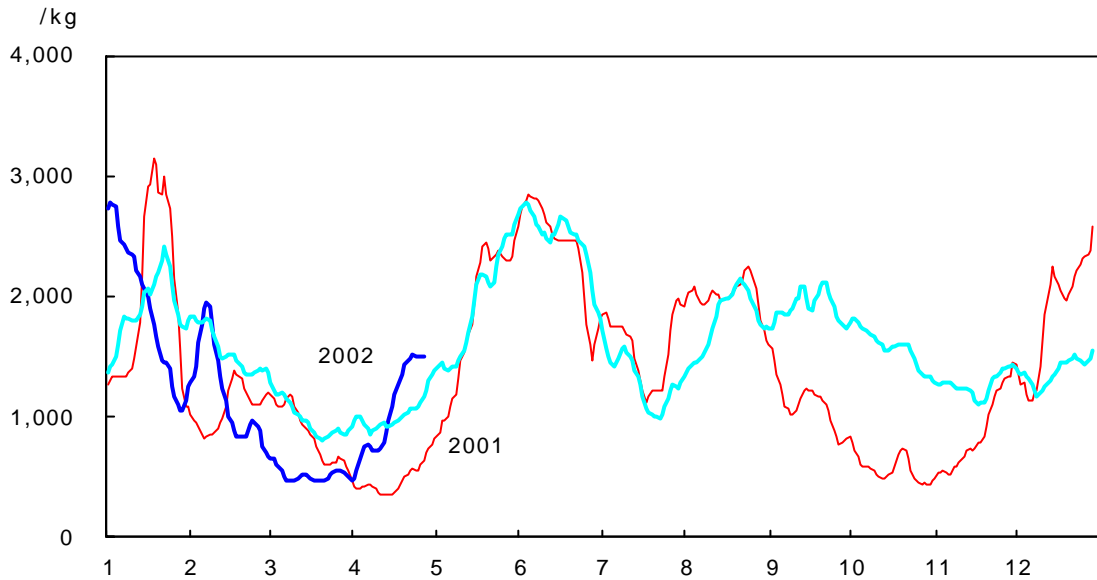
<대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시기	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전체
봄	9.6	6.9	5.5	-	2.4	6.9	6.3
여름	8.8	4.9	-4.4	0.6	0.0	1.7	5.3

사. 쪽파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3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상품성 높은 물량이 적어 4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940원(중품 71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3% 낮았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2배 높은 수준.
- 5~6월의 봄쪽파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1% 적어 5~6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
- 7~8월의 여름쪽파 출하예상면적은 4% 많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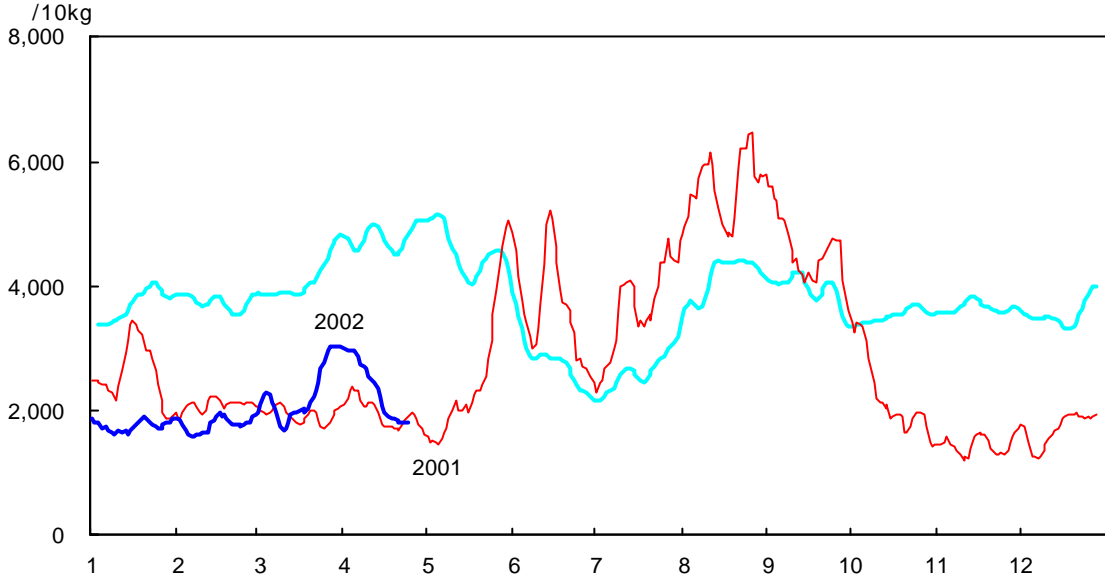
<쪽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시기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봄	-5.6	3.7	0.0	0.0	2.1
여름	-	6.3	3.2	-	4.4

아.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4월에는 시설양배추 출하를 앞두고 저장양배추 출하량의 증가로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2,450원(중품 1,82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49% 낮았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28% 높은 수준.
- 5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4%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다소 낮은 상품 10kg당 2,700원 내외 전망.
- 고랭지양배추의 정식의향면적은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작년 7~9월 가격이 높아 정식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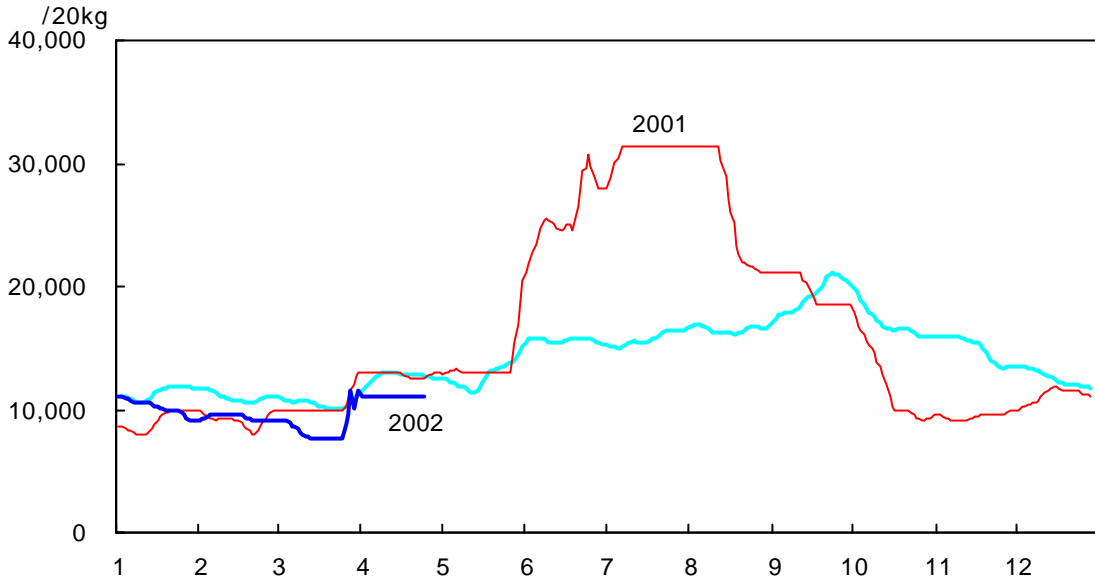
<고랭지양배추 정식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4월	5월	6월	7월	전체
10.5	2.2	-11.7	-16.7	-2.9

자.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제주산 저장당근의 출하량 증가로 4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1,100원(중품 9,00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12%, 작년 동기보다는 14% 낮은 수준.
- 5월에는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14%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근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1,000원 내외로 4월과 비슷하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
- 고랭지당근의 파종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조기파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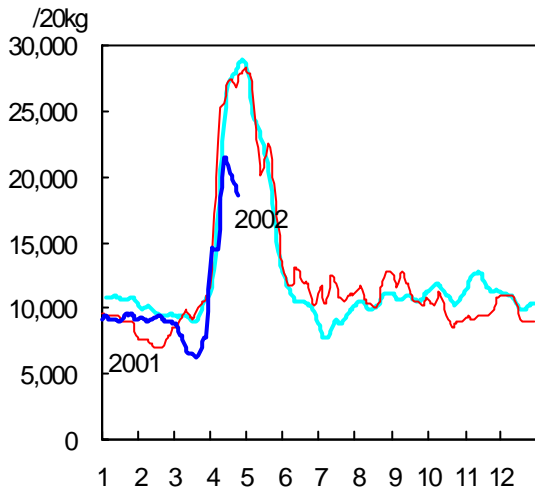
<고랭지당근 파종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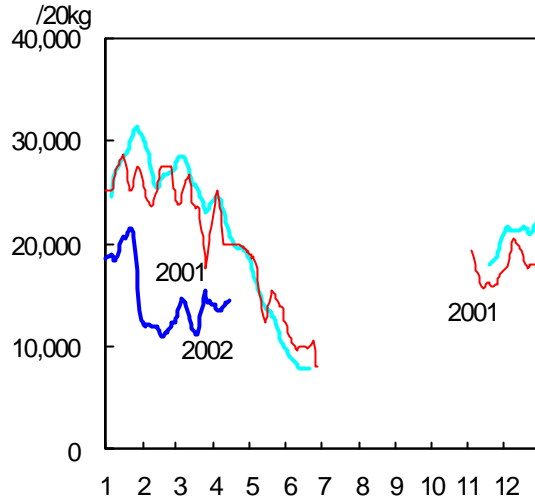
4월	5월	전체
52	-126	19

차. 감 자

<감자 도매가격 동향(수미, 상품)>



<감자 도매가격 동향(대지, 상품)>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시설재배 봄감자(수미) 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한 1,240ha이고 예상단수는 8% 증가한 2,800kg 내외가 되어 생산량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3만 4,800톤 내외가 될 전망. 5월 수미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3% 많아 가격은 상품 20kg당 19,000원 내외로 4월보다 높겠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
- 제주도 겨울감자(대지)의 면적은 1,232ha로 작년보다 8% 감소하였고, 예상단수는 4% 증가한 2,400kg 내외로 생산량은 작년보다 4% 감소한 2만 9천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5~6월 대지감자 가격은 상품 20kg당 13,000원 내외로 4월 보다는 하락하지만 작년 동기보다 약간 높을 전망.
- 4~5월에 파종되는 강원도 고랭지감자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할 전망.

<시설봄감자 예상 생산량>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작년 대비 증감률(%)
1,240	2,790~2,820	34.6~35.0	12.1~13.4

<겨울감자 예상 생산량>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작년 대비 증감률(%)
1,232	2,360~2,410	29.4~29.7	-4.0~-4.8

2.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4월 과일 가격은 대체로 3월과 비슷한 수준. 사과는 저장공급량 부족으로 4월 가격이 3월보다 높고, 하우스감귤과 하우스포도의 출하가 앞당겨지고 과채류 공급도 증가하여 감귤, 배, 포도 가격은 약보합세.
- 하우스감귤과 하우스포도의 5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35% 정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 3월까지 오렌지 수입량은 4만 1천톤, 포도 수입량은 1,800톤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많았음. 그러나 4월 이후 증가세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전망.
- 사과, 감귤, 포도 성목면적은 각 330~740ha 감소하고, 배, 복숭아, 단감 성목면적은 각 220~840ha 증가하여 과수 전체 성목면적은 100여ha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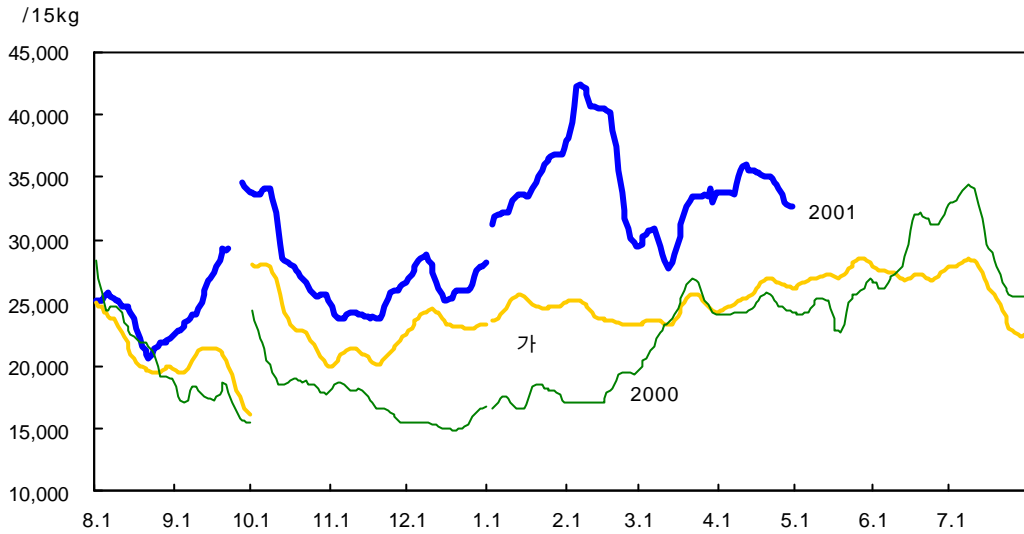
<주요 과일의 3~4월 가격 변동률>

단위: %

	3월 가격		4월 가격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사과	30	31	41	34
배	△6	△17	△22	△31
감귤	△13	△15	△25	-
단감	10	△5	2	△13
포도	-	3	-	3
오렌지	9	△13	18	△12

나. 사과

<가격동향>



주: 8~9월은 쓰가루, 10~약년 7월은 후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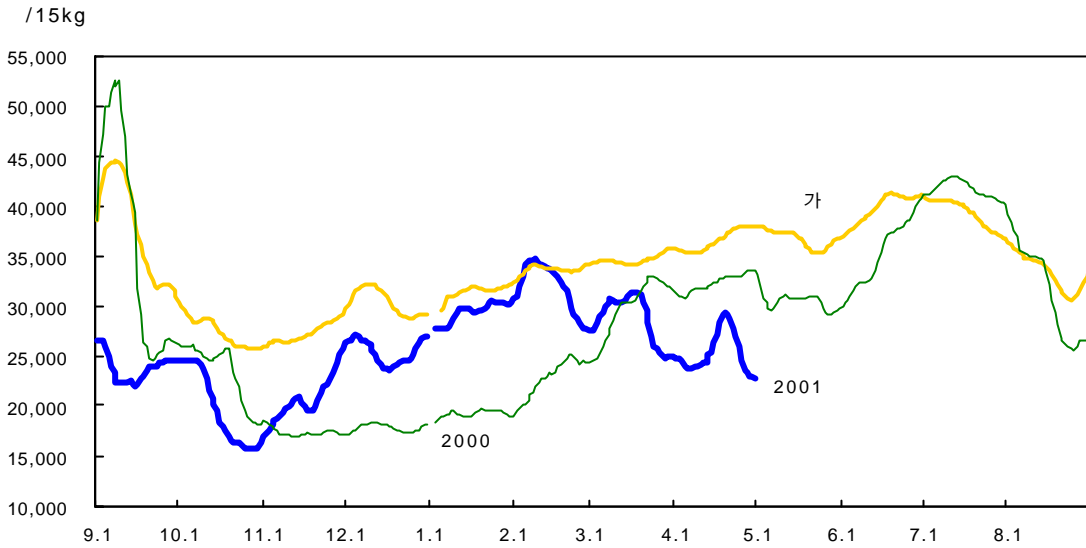
- 4월 후지 가격은 상품 15kg당 3만 4천원으로 지난해 및 평년보다 40% 높은 수준.
- 저장량이 지난해보다 10% 적고 저장상태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5월 가격은 지난해 및 평년(상품 15kg당 2만 7천원)보다 높을 전망.
- 사과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2%(380ha) 적은 1만 8,800ha 수준 전망. 후지가 3%, 쓰가루가 8% 줄어들고 홍로는 6%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추석용 사과 출하량은 늘고 조생종과 만생종 출하량은 줄어들 전망.

<공급량 추정>

		생산량 (A)	'01.8~'02.3월 출하량(B)	수출량 (C)	4월이후 공급량 (A-B-C)
공급량 (천톤)	2000년산	489	423	40	62
	2001년산	404	344	41	56
2001/2000 증감률(%)		-17.4	-18.8	25	-9.9

다. 배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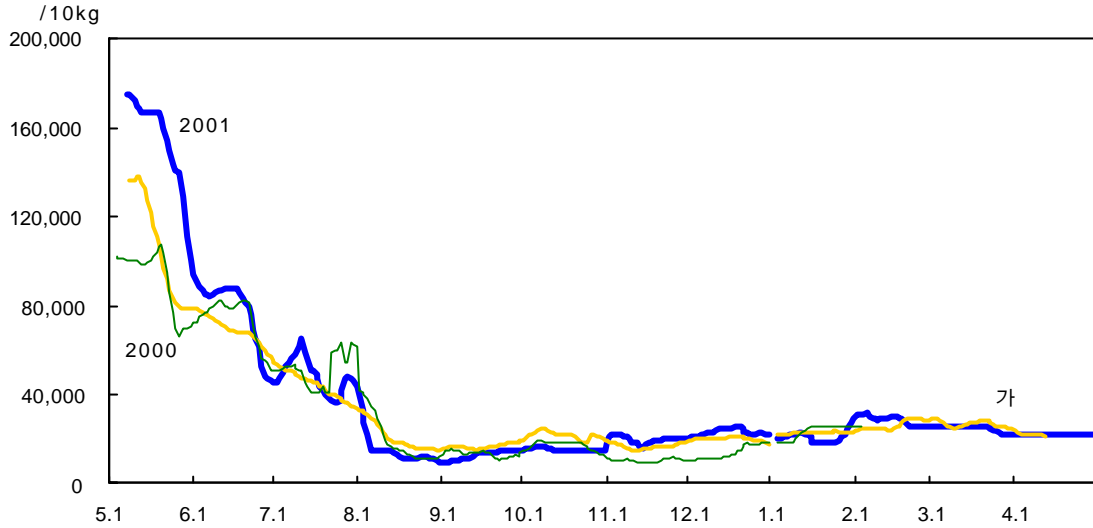
- 신고 가격은 4월 중순에 상품 15kg당 2만 9천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중순 이후 반입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 4월 하순 가격은 2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낮은 수준.
- 저장량은 지난해보다 12%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과채류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5월 가격은 지난해(상품 15kg당 3만 1천원)보다 낮을 전망.
-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6%(840ha) 늘어난 1만 5,600ha가 될 전망. 품종별로는 신고가 6%, 추석 출하 품종인 황금배와 원황이 6~8% 늘고 장십량은 7%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추석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

<공급량 추정>

		생산량 (A)	'01.9~'02.3월 출하량(B)	수출량 (C)	4월이후 공급량 (A-B-C)
공급량 (천톤)	2000년산	324	289	92	26
	2001년산	417	373	144	29
2001/2000 증감률(%)		287	293	565	124

다. 포도

<가격동향>



주: 5~7월은 델라웨어 8~10월은 캠벨얼리 11~익년 4월은 세단기준임.

- 4월 포도 가격은 세단 상품 10kg당 2만 2,500원 수준으로 3월과 보합세 유지. 수입포도가격은 상품 8kg당 2만 9,1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음.
- 하우스포도 면적이 지난해보다 16% 늘고 단수가 1% 늘어, 하우스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7% 정도 많을 전망. 특히 5~6월 출하량이 크게 늘어 지난해보다 30% 이상 많을 전망.
- 3월까지 포도수입량은 1,837톤으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임. 그러나 5~6월 국내산 하우스포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량 증가세는 약화될 전망.

<하우스포도 월별 예상출하연적>

		4~5월	6월	7월	전체
면적(ha)	2001년	46	275	904	1,225
	2002년	62	369	995	1,426
2002/2001증감률(%)		350	342	10.1	16.4

라. 복숭아

- 복숭아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8,600ha 수준이 될 전망. 충청과 영남지역에서 7~8%,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5% 정도 늘고, 호남지역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 품종별로는 유모계가 7%, 천도계가 3% 늘어날 전망. 신품종 성목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구품종 성목면적은 감소하고 있음.
- 중·만생종이 5~12% 늘어나고 전망이며 조생종은 지난해 수준일 전망. 조생종은 월미, 월봉, 사자, 호기도가 약간 줄고 일천백봉과, 백미는 지난해 수준. 중생종은 미백, 천중도, 만생종은 황도계통과, 레드골드의 성목면적이 증가.

<지역별 복숭아 성목면적>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면적 (ha)	2001년	810	4,920	755	1,577	8,062
	2002년	847	5,274	760	1,710	8,590
2002/2001증감률(%)		4.5	7.2	0.7	8.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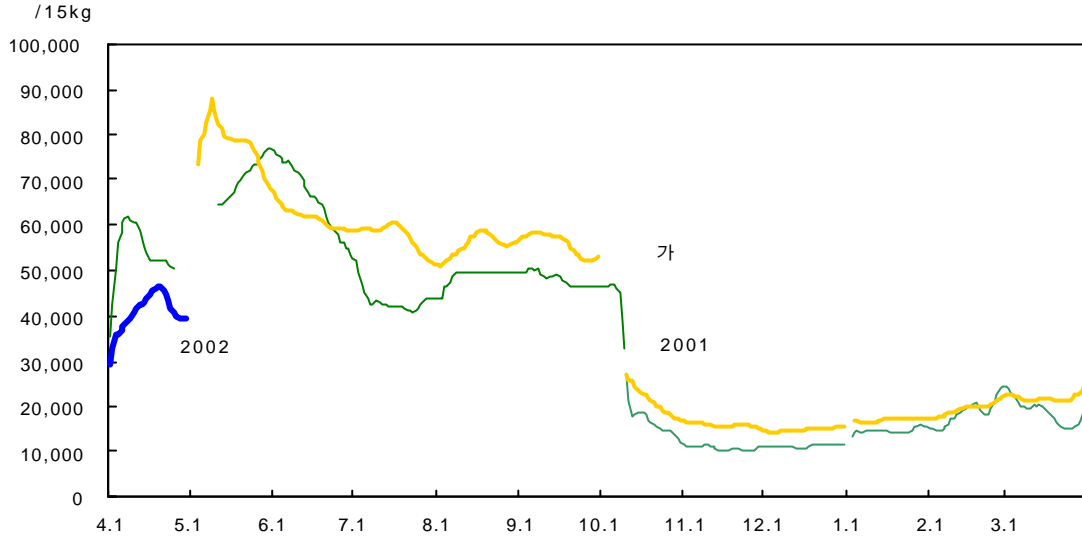
<품종·숙기별 복숭아 성목면적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

	조생	중생	만생	계
유모	0.4	8.5	11.1	7.4
천도	-1.2	-0.2	2.43	3.0
계	0.1	5.4	12.2	6.5

마. 감귤

<가격동향>



주 :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월동재배 및 하우스감귤 5kg를 15kg로 환산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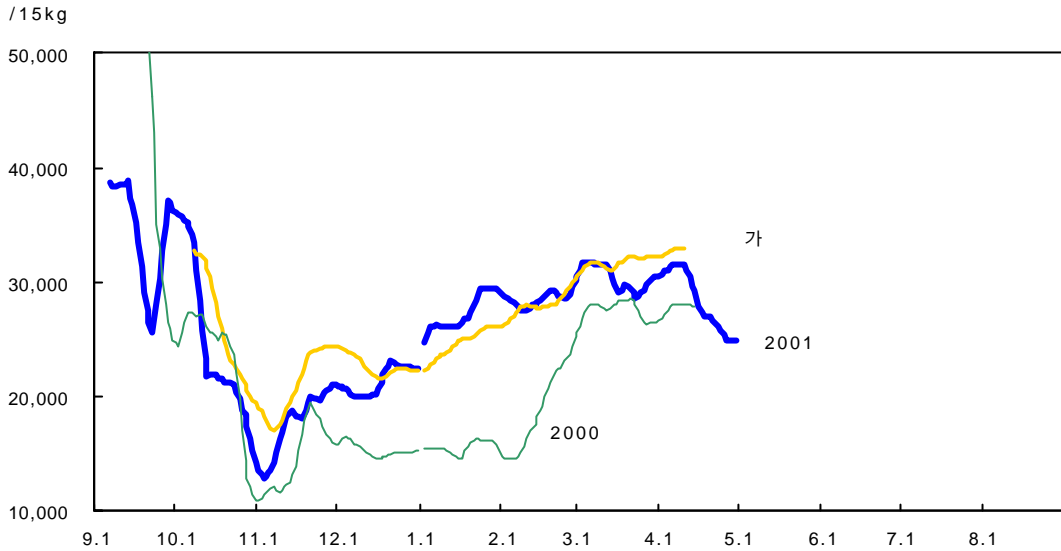
- 4월 월동온주 가격은 5kg당 1만 2,8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 낮고, 한라봉 가격은 3kg당 1만 4,700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낮음. 4월 시설감귤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것은 시설감귤의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노지감귤 생산 증가로 출하기간이 지난해보다 길어 시설감귤 출하가 3월 하순 이후 본격화되었기 때문.
- 하우스온주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됨. 기온이 높고 일조량도 많아 단수는 지난해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할 전망.
- 하우스온주의 5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6% 많을 전망. 이는 지난해 4월에서 6월 중순까지 가격이 높았으며, 월드컵행사에 대비하여 극조기 가온 재배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가온하우스온주의 생산전망>

	면적 (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년산	464	5,460	25
2002년산	465	5,600	26
2002/2001 증감률(%)	0.4	27	3.0

바. 단감

<가격동향>



주 : 9월은 서촌조생등 기타품종가격, 10월 이후는 부유가격임.

- 4월 단감가격은 부유 상품 15kg당 2만 8,4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 높은 수준.
-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210ha)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1%(220ha)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 성목면적은 부유와 차랑·서촌조생 등이 1~2% 늘어나며, 상서조생은 12% 늘어날 전망.
- 지난 겨울 날씨가 평년에 비해 따뜻했던 데다 최근까지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아 발아기가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빨랐고, 개화도 빨라질 전망.

<단감 품종별 성목면적>

		부유	차랑	서촌조생	상서조생	기타	전체
면적 (ha)	2001년	13,388	1,920	988	78	412	16,786
	2002년	13,518	1,955	1,011	88	433	17,000
2002/2001 증감률(%)		1.0	2.0	2.3	12.2	5.0	1.3

3.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4월 중순까지 과채류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았고, 하순부터는 높았음. 이렇게 하순부터 높았던 것은 지난해보다 출하면적은 늘어났으나 3월말 이후 잦은 황사현상으로 인해 단수가 감소하였고, 조기출하면적이 많아 4월 하순 이후 출하 공백이 있었기 때문임.
- 5월에 중순이후에는 참외를 제외한 수박, 오이, 호박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5월 중순이후 과채류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
- 5월 과채류 정식의향면적은 경기회복,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심리와 지난해 가격이 좋아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과채류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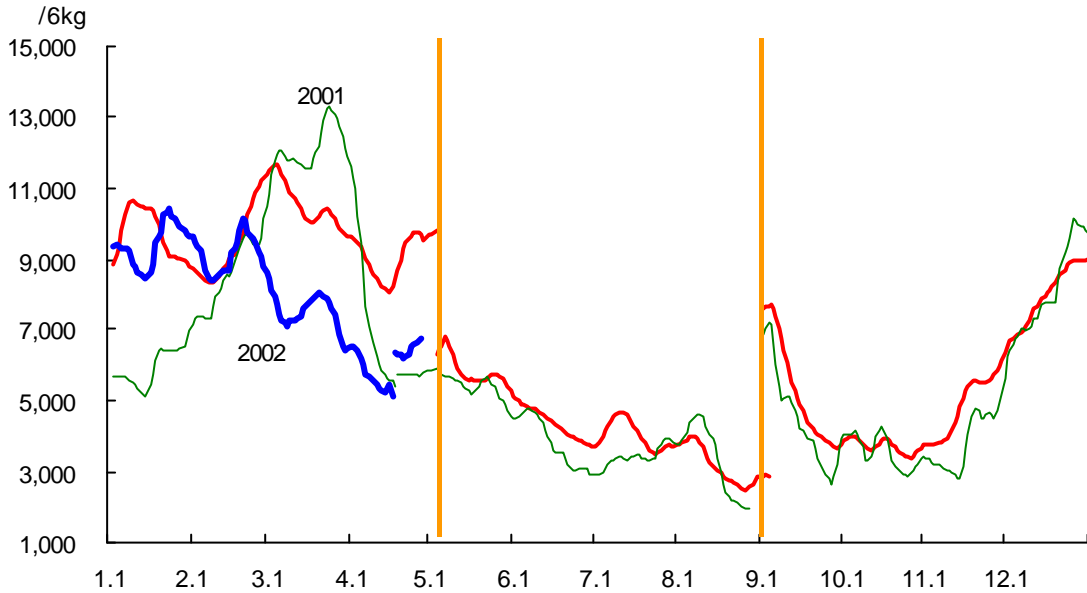
단위: %

	1~3월 가격		4월 가격	
	작년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작년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수박	△5	△15	8	△24
참외	5	9	2	△4
토마토	68	86	46	54
방울토마토	67	24	21	3
호박(쥬키니)	△29	△18	56	1
호박(애호박)	△5	2	25	17
오이(취청)	2	3	5	4
오이(백다다기)	3	△1	1	4
메론	46	47	5	9
가지	32	14	29	△1
딸기	△12	△16	△38	△30

주: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수박

<수박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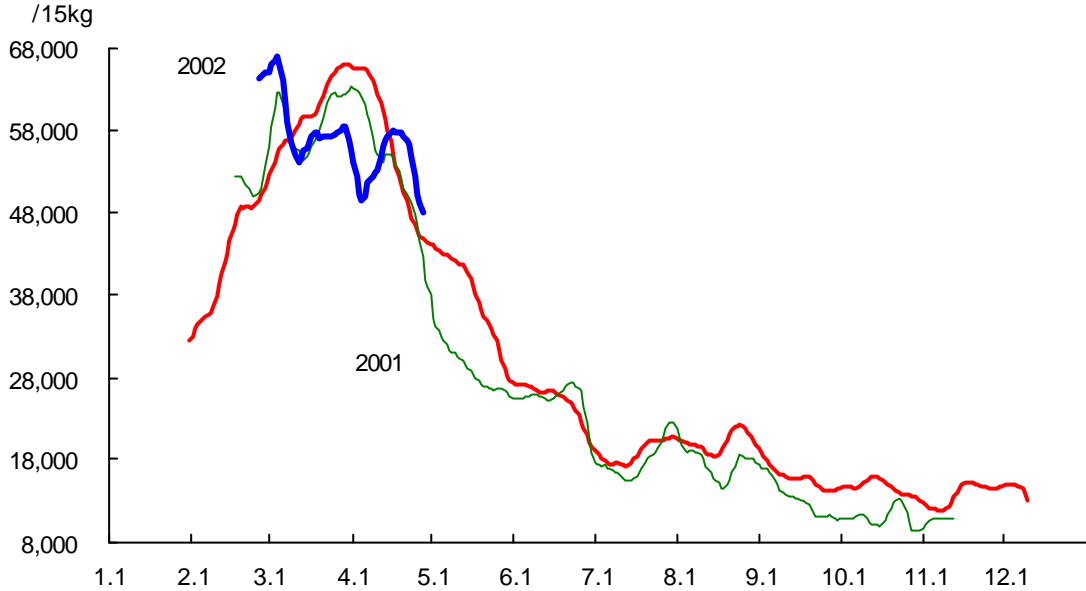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9월~익년 4월 까지는 상품 10kg 상자가격을 6kg 단위로 환산한 수치임.

- 4월 중순이후 수박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가격은 지난해(상품 5,965원/6kg)보다 8% 높고, 평년(상품 8,479원/6kg)보다는 24% 낮은 수준임.
- 5월 출하예정면적은 지난해 대설로 출하를 하지 못했던 면적이 올해는 기상조건이 좋아 출하가 가능해져 지난해보다 4~9% 늘어날 전망.
- 5월 상순까지 출하될 수박단수는 황사로 인해 낮고, 중순 이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보다 3~4% 높을 전망.
- 5월 중순 이후부터 수박 출하예상량은 지난해보다 7~13% 많고 딸기, 토마토 등 대체과일 물량도 많아 수박 도매가격은 지난해(5,377원/6kg)와 평년(5,923원/6kg)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7월말에 출하될 5월 상순 정식의향면적은 줄고, 8월부터 출하될 5월 중순 이후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가격이 좋아 6~29%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다. 참외

<참외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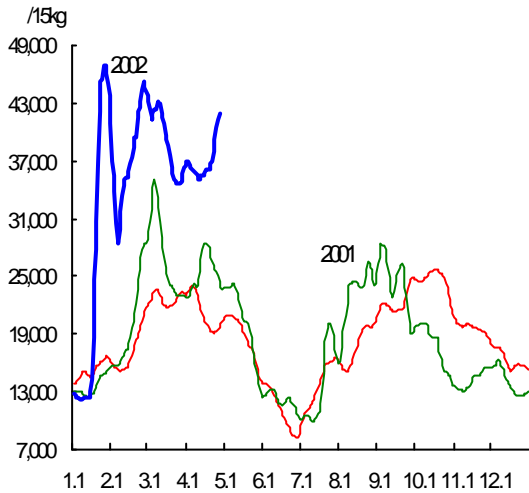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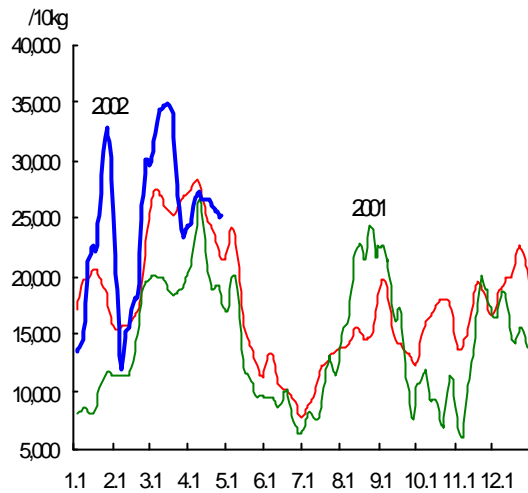
- 4월 중순부터 참외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상품 52,354원/15kg)보다 2% 높고, 평년(상품 55,632원/15kg)보다는 4% 낮은 수준임.
- 5월 출하예정면적은 영남지역이 정식을 한달 이상 앞당겨 4월에 출하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호남지역의 익산·정읍, 충청지역의 논산을 중심으로 재배(의향)면적이 줄어들어 출하면적은 4~27% 줄어들 것으로 전망.
- 5월 상순까지 출하될 참외단수는 황사로 인해 낮고, 중순 이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보다 다소 높을 전망.
- 5월에 출하될 물량은 단수는 높으나 면적이 줄어 지난해보다 5~3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지난해(28,808원/15kg)와 평년(37,523원/15kg)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올해 참외면적은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지난해 가격이 좋아 주산지인 성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의 면적이 늘었기 때문임. 그러나 비주산지인 충청지역과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라. 토마토

<일반 토마토 도매가격, 원/1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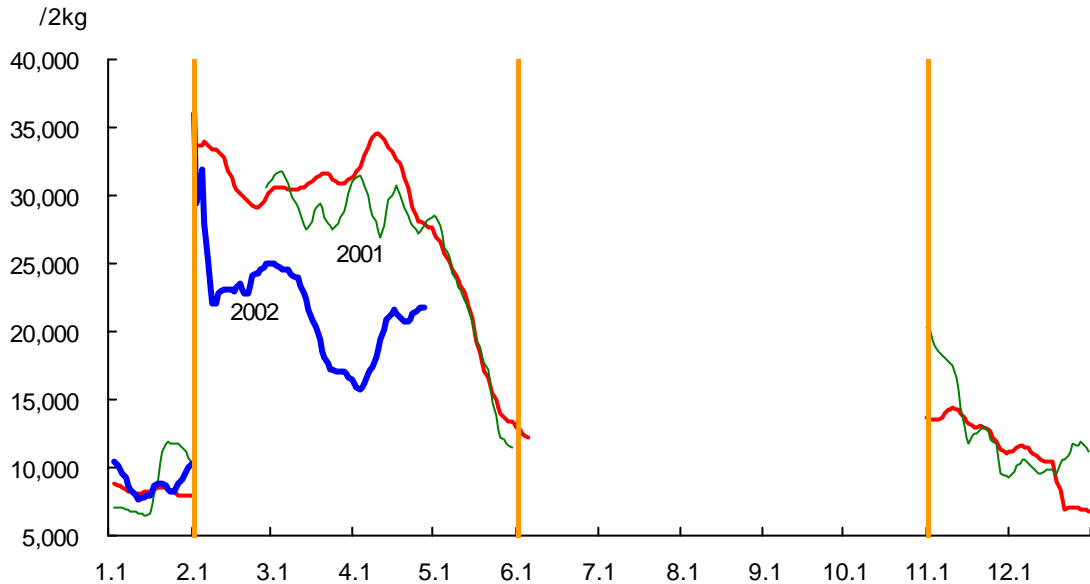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원/10kg>



- 4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많지만 품질이 좋고 대체과일물량이 적고 신선과일 수요증가로 가격은 지난해(일반 상품: 21,320원/15kg)보다 46% 높은 수준이며,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방울 상품: 15,080원/10kg)보다 21% 높은 수준임.
- 5월 중순이후 일반토마토 출하예상량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월 일반토마토 가격은 지난해 20,200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5월 방울토마토 출하예정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지만, 기온과 일조량이 생육상태에 적합하여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5월 일반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5월 방울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은 지방선거 등에 의한 소비증가 예상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마. 딸기

<딸기 도매가격, 원/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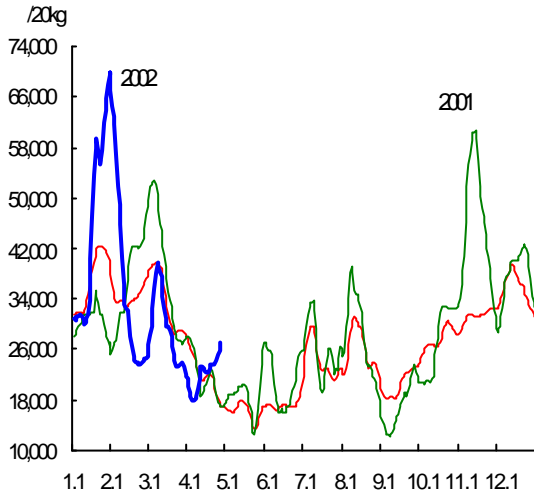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002년 도매가격은 2월1일부터 2kg를 8kg로 환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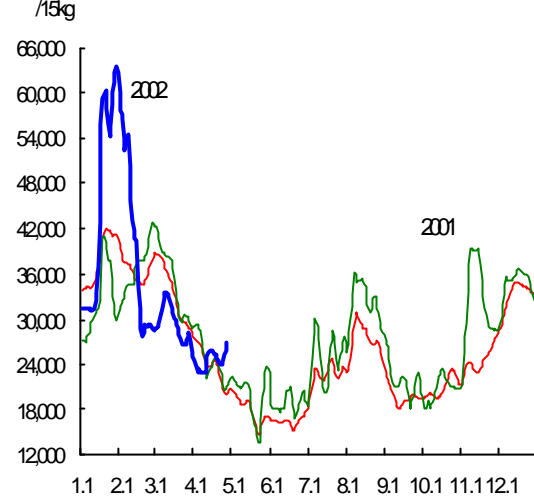
- 4월 딸기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상승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 지난해(상품 29,120원)보다 38% 낮은 수준임.
- 5월 출하예정면적은 올해 2~3월 딸기 가격이 지난해 보다 낮아 경남과 충남지역 축성재배면적의 수확종료 시기가 빨라져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5월에 출하될 딸기의 예상단수는 병충해 피해가 많고, 올해 2~3월 가격이 낮아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5월 딸기 출하예상량은 지난해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대체과일 물량 증가와 출하종료시기에 접어들어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은 지난해(상품 19,7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바. 오이

<취청 도매가격, 원/20kg>



<백다다기 도매가격, 원/15kg>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4월 중순이후 출하물량이 지난해보다 적어 도매가격은 지난해(백다다기 상품: 24,100원/15kg, 취청 상품: 21,200원/20kg)보다 1~5% 높은 수준임.
- 5월 중순이후 취청 출하예상량은 지난해보다 2% 많아 5월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평년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백다다기 출하예정면적은 지난해보다 늘고, 단수도 높아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5월의 취청 정식의향면적은 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백다다기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가격이 좋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대비 5월 출하량 및 재배의향면적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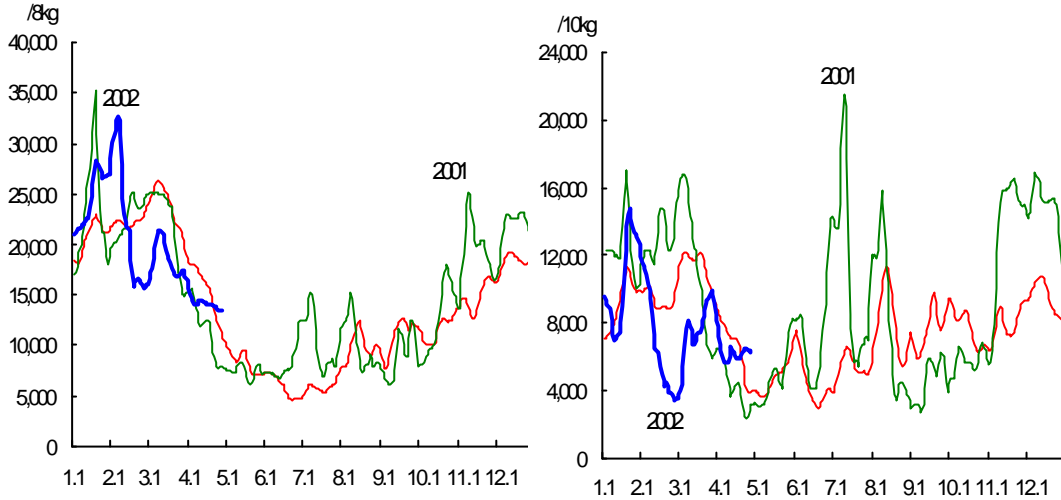
단위: %

	예상출하량	정식(의향)면적
취 청	22	1.4
백다다기	7.6	5.8

사. 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원/8kg>

<쭈키니 도매가격, 원/10kg>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4월 출하물량은 지난해보다 13~16% 적어 가격은 지난해(애호박: 11,500원, 쭈키니: 4,000원)보다 25~56% 높은 수준임.
- 5월 중순이후에 출하될 애호박, 쭈키니의 출하예상량이 지난해보다 3~5%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5월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5월의 애호박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6~7월 가격이 전년보다 좋아 지난해보다 3% 늘고, 5월의 쭈키니 정식의향면적도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대비 5월 출하량 및 재배의향면적 증가율>

단위: %

	예상출하량	정식(의향)면적
애호박	27	26
쭈키니	47	1.1

4. 축산

가. 개황

- 한우 산지가격은 2001년 12월 이후 2002년 4월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설 이후 농가 출하두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4월 중순 이후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임.
- 원유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하였지만 원유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아 원유 재고량은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사육의향이 여전히 높아 초임만삭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하였음.
- 4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양돈농가의 사육의향이 불안정해지면서 성돈 출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산지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더 이상의 발생이 보고되지 않으면 산지가격은 회복될 전망이다.
- 2~3월 계란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하락하였고 평년에 비하여 2.6% 하락하였음. 4월 계란가격(1~28일)은 지난해 동기대비 22.0% 하락하였으며, 평년과 비교하여 12.9% 하락한 708원으로 나타남.
- 육계의 경우 질병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4월 산지 가격(1~28일)은 3월 1,609원보다 5.4% 하락한 kg당 1,526원임.

<지난해 및 평년 동기 대비 가격의 증감률>

단위: %

	1~3월 가격		4월 가격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¹⁾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²⁾
한우(큰수소)	41.9	59.1	18.0	36.4
한우(수송아지)	49.7	100.5	31.5	99.4
초임만삭우	20.1	36.4	15.9	33.5
돼지	21.5	5.0	15.6	14.7
육계	△9.2	0.5	△13.6	6.2
계란	△6.0	△2.6	△22.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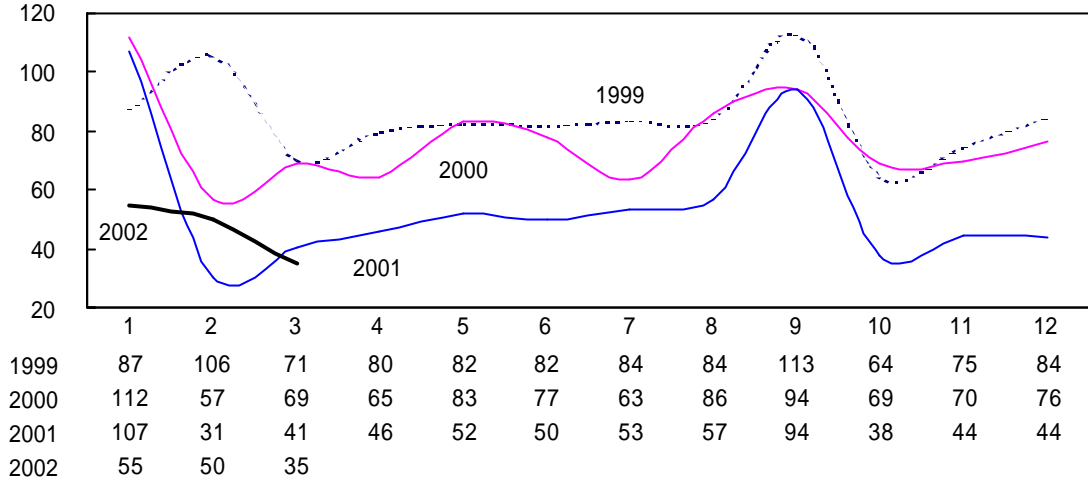
1)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4월 가격은 1~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나.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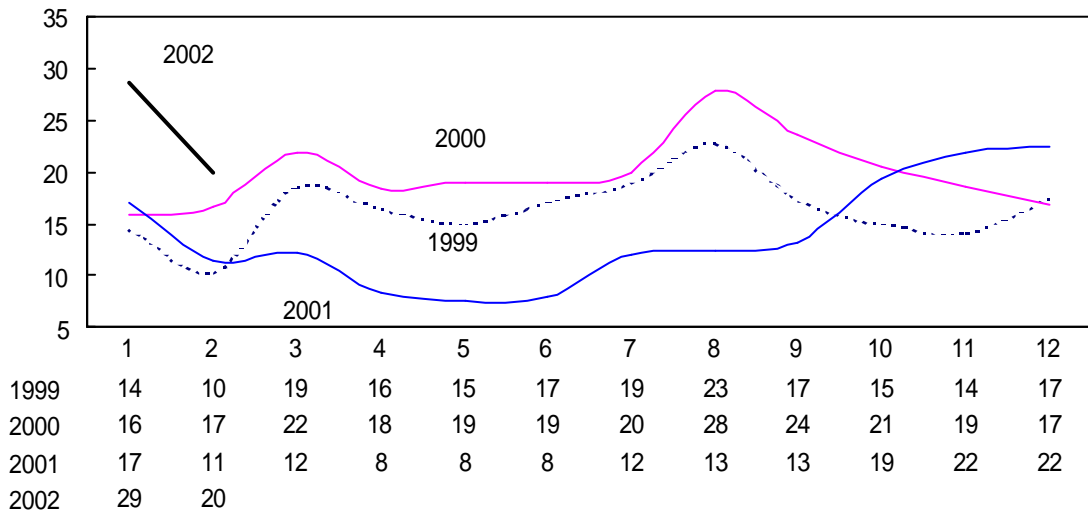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 3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3만5천두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 감소, 전월에 비해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설 이후 쇠고기 소비 감소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농가 출하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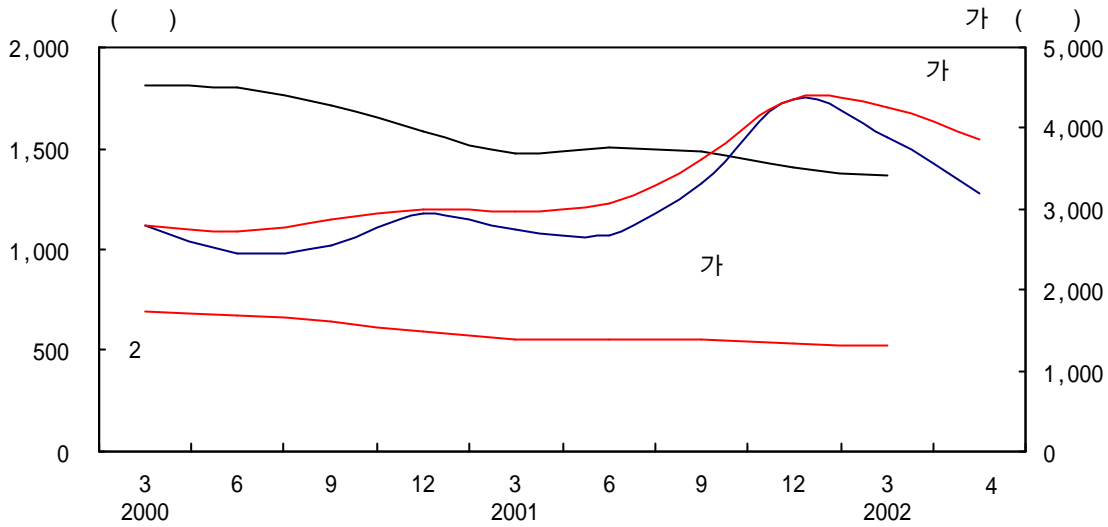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1~2월 쇠고기 수입은 4만 9천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1%나 증가함. 쇠고기 수입은 한우가격 강세로 작년 11월 이후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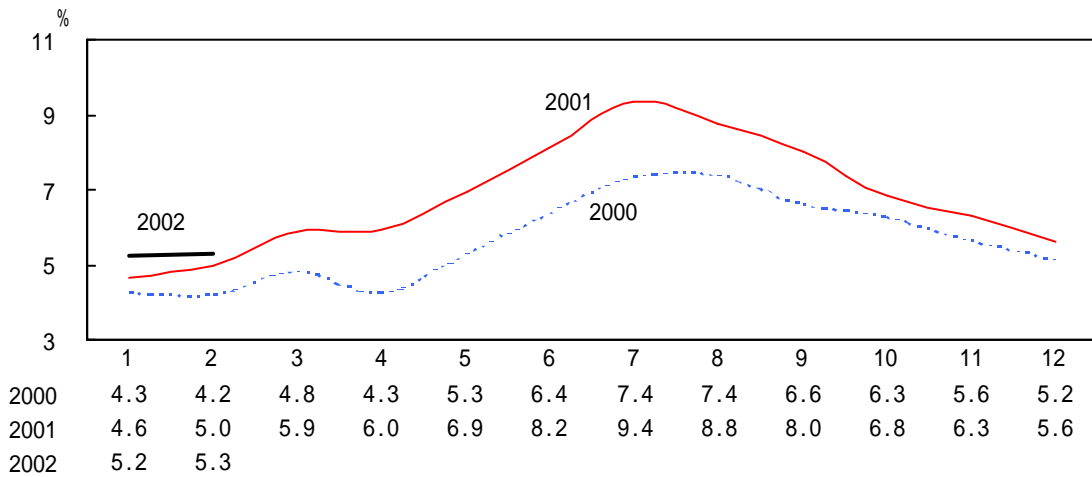
<한우 산지가격동향>



주: 2002년 4월 가격은 1~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 쇠고기 수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2002년 4월까지 한우 산지가격은 점차 하락, 설 이후 농가출하두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산지가격은 4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섬.

<한육우 월간 인공수정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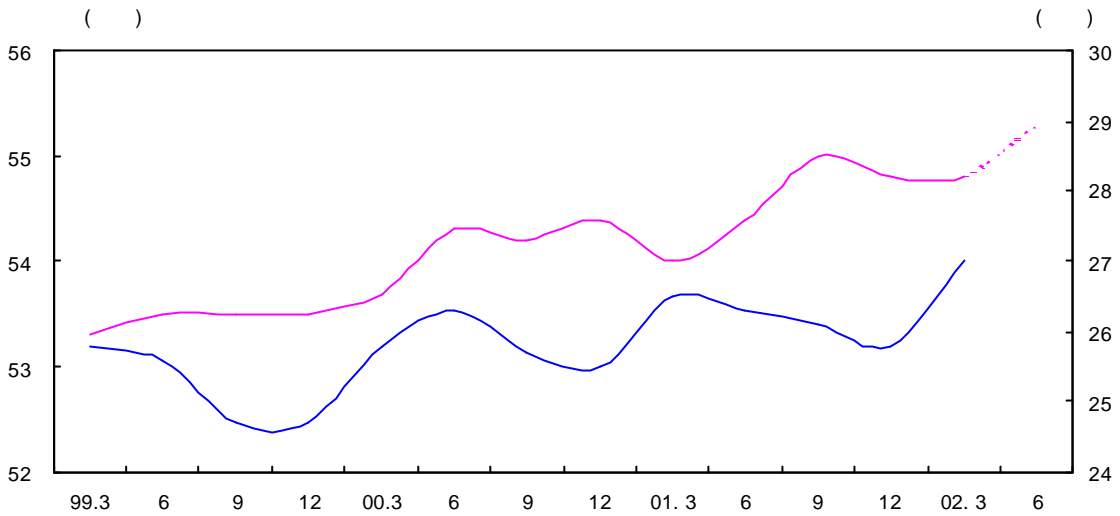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산지 송아지가격 강세로 2002년 한육우 월간 인공수정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 계속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번식의향은 작년에 비해 점차 커지는 추세임.

다. 젖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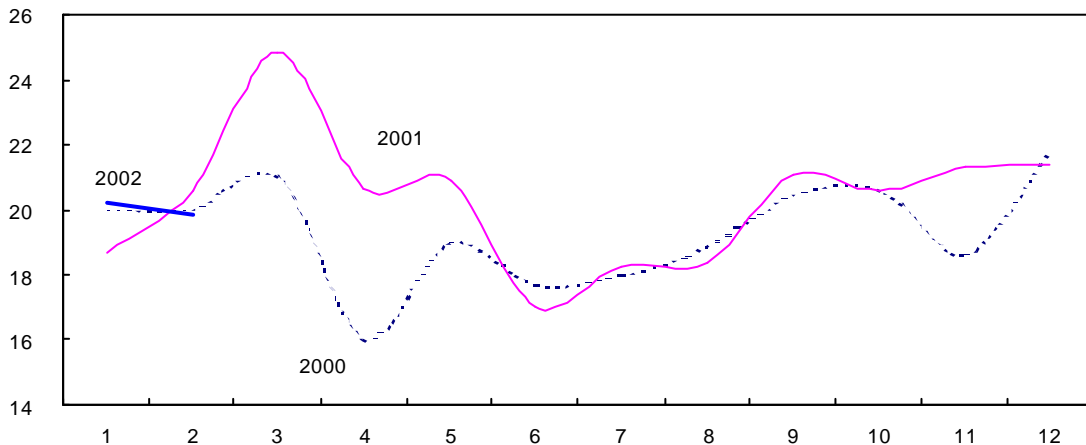
<젖소 사육두수>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2002. 6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2002년 3월 젖소 총 사육두수는 54만 8천두로 3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 3월보다는 1.5% 증가하였음. 2001년 5~7월 인공수정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하여 2002년 3~5월에 태어날 송아지 두수는 2001년 3~5월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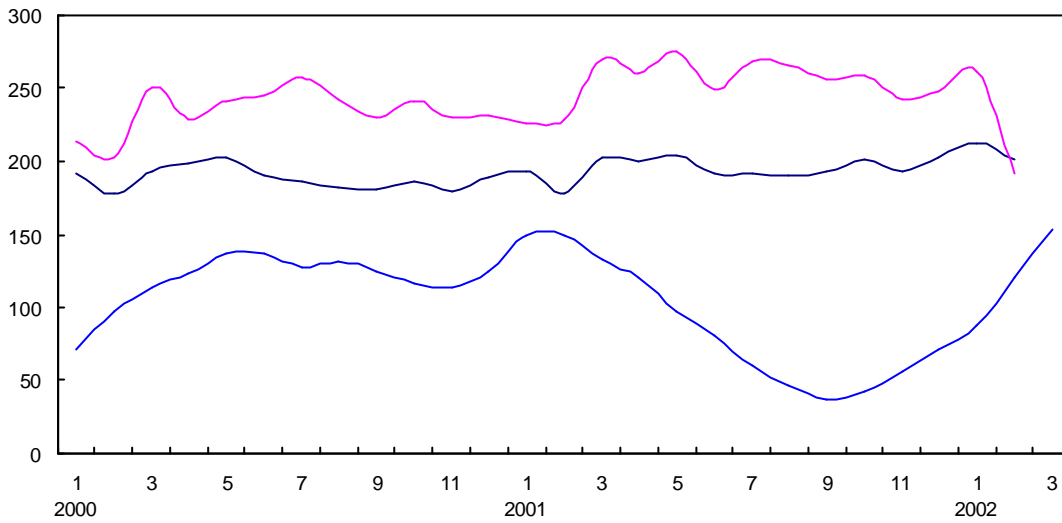
<월별 인공수정실적>



자료: 농림부.

- 2002년 3월 착유우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하여 원유생산량은 11% 증가하였음. 백색시유 소비량은 3.6% 감소하였으나 가공용 원유소비량이 증가하여 전체 원유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3월 원유재고량은 지난해 동월보다 17% 증가하였음.

<원유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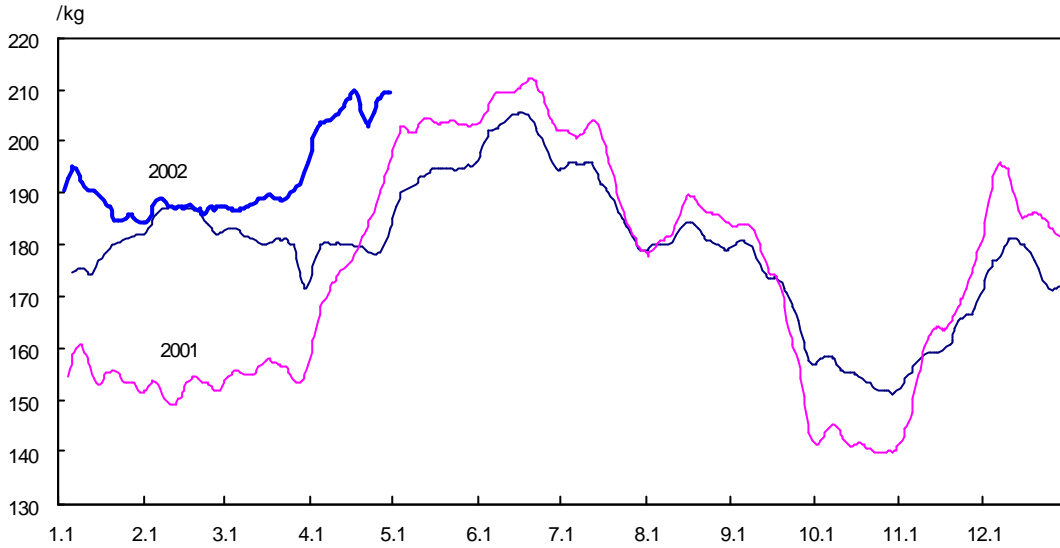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재고량이 증가한 원인은 지속적인 젖소 개량 사업의 실시, 규모화로 인한 사양관리 기술 향상, 집유일원화로 인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산유량이 증가하였음. 또한 최근 BST 등 비유촉진제 사용이 생산량을 증가시켜 재고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체세포 패널티의 완화와 쌀 대체 작목으로 젖소사육을 선호하면서 체세포 수가 높고 유량이 낮은 저능력우의 도태가 미루어져 왔음. 이에 정부에서는 4월 22일~5월 22일까지 착유우 3만두를 도태하기로 결정하고 한 마리당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기로 함. 5월 1일 현재 도태두수는 85두에 그쳐 실적이 저조함.
- 낙농가는 착유우 3만두 도태 후 원유수급이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젖소 도태시 유우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도태에 비협조적임. 젖소 도축후 수매비축으로 유우가격을 안정화하고 젖소도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도태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라.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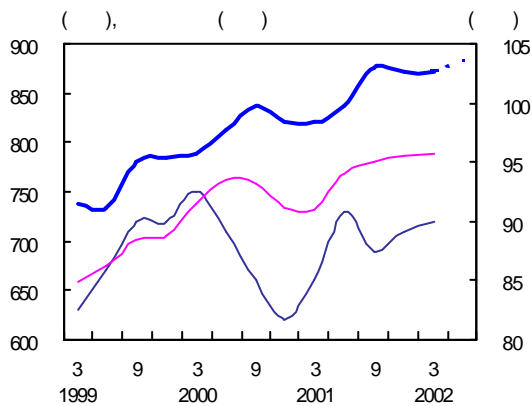
<성돈 산지가격동향>



주: 5일 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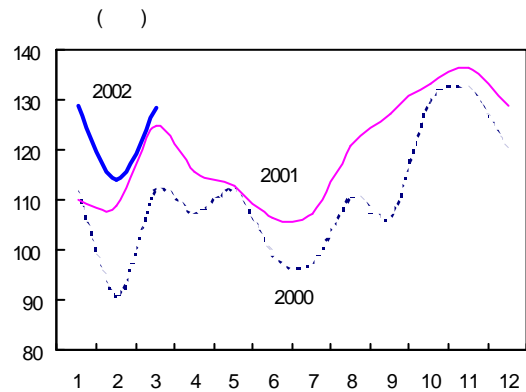
- 행락철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돈 산지가격이 4월 16일 21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4월 18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음. 돼지콜레라가 진정되면서 4월 30일 현재 평년(18만원)보다 18% 높은 21만 5천원으로 상승함.
- 2002년 3월 사육두수는 2001년 12월과 비슷한 872만두, 모돈수는 96만두로 2001년 12월보다 0.3% 증가하였음. 5월 1일 강원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재개에 차질이 예상됨.

<돼지 총두수와 모돈수>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02. 6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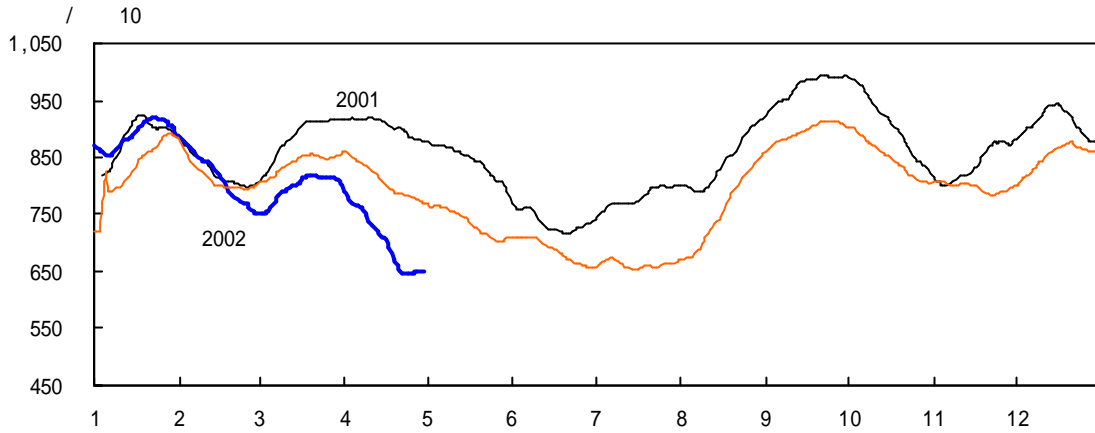
<월별 도축두수>



자료: 농림부.

마.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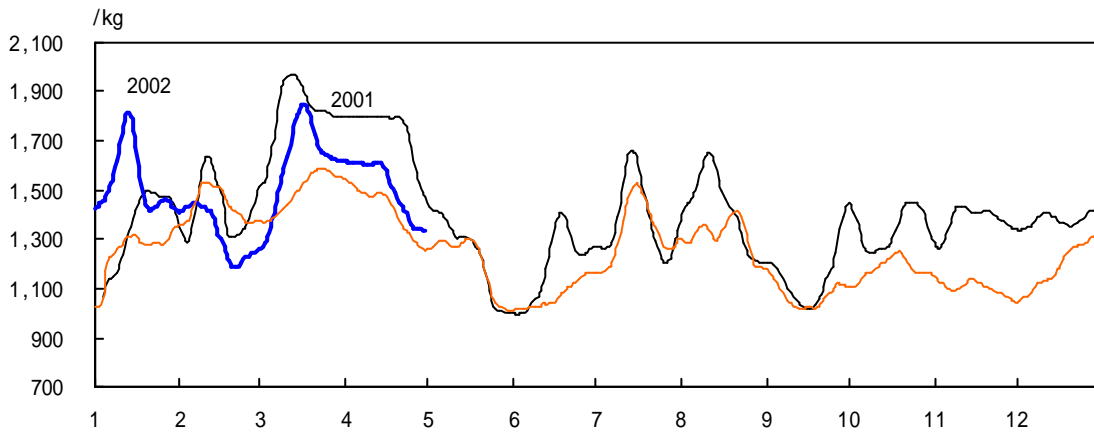
<계란 산지가격동향>



주: 5일 이동평균가격.

- 설 명절 이후 계란가격은 소비감소로 하락세를 보이다 3월 하순 부활절 특수로 상승세를 나타내었음. 4월 평균가격(1~28일)은 특란 10개에 708 원이었음. 계절적으로 5~7월의 수요가 2~4월보다 증가하나 공급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5~7월 평균계란 산지가격은 평년(695원)보다 다소 낮은 650~7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육계 산지가격동향>



주: 5일 이동평균가격.

- 계절적으로 질병이 감소하고 기후조건이 호전되어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4월 육계산지가격(1~28일)은 3월 1,609원보다 5.4% 상승한 kg당 1,526원이었음. 5월 도계수수가 4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5월 평균산지가격은 4월 1,526원보다 하락한 kg당 1,200~1,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IV. 지역 언론 보도 내용

<지방일간지 23종에 보도된 4월 중 농업관련 주요 이슈>

■ 보도 개황

- 정부가 4월18일 '중장기 쌀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언론들이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과 내용 분석, 사설 등을 일제히 게재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고, 4월 중순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경기미 유통을 봉쇄해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경기지역 언론에 연일 주요기사로 다뤄졌음. 또, 같은 시기에 강원도 철원지역에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돼지가격의 급락과 대일수출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이 집중적으로 취급되었음.
-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농지법에 대해 농촌개발 활성화와 지역난개발을 우려하는 엇갈린 반응이 다수 취급되었고, 올들어 농기계 판매량이 급격히 줄고 있어 농기계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관심있게 다뤄졌음. 또,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는 보도와 함께 호주산 생우 수입 추진과 관련해 각지역 축산농가들이 이번에도 강력히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비중있게 취급되었음.

□ 「4.18 중장기 쌀산업 종합대책」 농민단체 반발

- 정부가 4월18일 발표한 '중장기 쌀산업 종합대책'에 대해 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단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쌀산업을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이번 대책은 쌀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고 일제히 보도함. 특히, 농민단체는 벼농사 축소에 따른 특용작물과 과수 등의 과잉생산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도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함.
- 각지역 주요 신문들은 사실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쌀가격 안정과 시장 기능에 의한 생산조절이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설득

력이 없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언론들은 쌀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민들도 달라진 국제현실을 감안해 쌀에 대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함.

□ 개정농지법 시행 ‘기대반 우려반’

- 4월1일부터 농지이용과 관리제도를 완화한 개정농지법이 시행되자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제자유도시개발과 맞물려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밖에도 대부분 지역 언론이 사실을 통해 이번 농지제도 개선안은 농촌 개발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투기 조장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주문했음. 또, 일부 언론은 이 제도가 자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과 맞물려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으로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도 있다고 보도함.

□ 경기쌀 유통 봉쇄 논란

- 전남과 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재고 증가를 이유로 농협과 연계해 경기지역 쌀의 유통을 막는 한편, 민간 유통업체들도 경기미 납품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함. 이와 관련, 경기도는 4월 중순 대전 등지에서 경기미 홍보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해당지역 농민단체와 농협 등의 반대로 행사가 무산되는 등 경기미 유통을 원천적으로 저지당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농협중앙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

□ 농기계 판매량 급감

- 쌀값 하락에 따른 벼농사 포기가 잇따르면서 경기지역에서는 농기계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종고농기계 수요는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경북영양지역에서도 농기계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80~90%나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또, 전북 정읍지역에서도 농기계 판매량이 200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

들어 감소율이 전년대비 30~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기계업체의 경영난을 우려하는 보도도 있었음.

□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대일수출 재개 차질 우려

- 우리 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대일 돈육 수출을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4월18일 이후 각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취급됨. 특히 발원지인 강원도 김화를 비롯한 인근지역 언론들은 연일 돼지 콜레라 발생소식과 방역대책,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격 하락과 수출 차질을 우려함.
- 언론들은 이번 일로 대일 수출이 최소 6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는 1천8백만달러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경남지역에서도 3천5백만달러 가량의 손실을 추산하는 등 각지역에서 수출 차질을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랐으며, 대일 수출재개를 앞두고 급상승세를 보이던 산지 돼지값의 폭락도 우려된다고 보도하는 등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우려감이 팽배함.

□ 한우사육기반 붕괴 우려-호주산 생우수입 강력 반대

- 한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 충남지역에서는 3월말 현재 5백kg 수소가격이 1월초에 비해 1백만원정도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육두수는 계속 줄어 강원지역에서 최근 3개월새 4.3%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제주지역에서는 1년새 30%나 감소했다고 보도함. 한편, 호주산 생우 8백51마리가 5월 하순 부산과 인천항을 통해 수입될 것으로 알려지자 한우협회회원 등이 지난해처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마찰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함.